



잡어·엠펙·영광

서울大同窓會報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2004년 7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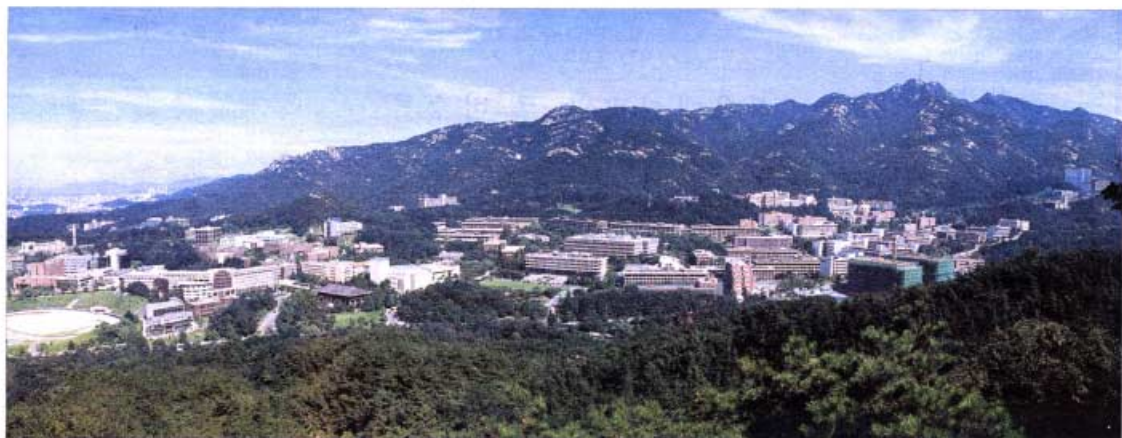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316호

http://www.snua.or.kr

등록번호 060-604-0011
전화 한 통화로

발행인 林光洙 / 편집인 孫一根 / 편집주간 許瑄 /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 FAX : 703-0755



오히려 국내의 많은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키울 때다

세계의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서울대학교의 위용

관련기사(2·6·7·18·24·25면)



미대 姜燦均 명예교수가 디자인한 관악캠퍼스 정문



미대 嚴德丁 명예교수가 제작한 校鳥 '학' 상징조형물

관악출추

모교의 鄭雲樞총장이 모
처럼의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대 폐지론에 맞서 싸
우겠다』고 말해 많은 사람
들을 놀라게 했다. 정말 누가 서울대를 폐지하려고
하는가, 서울대 폐지론은 실체인가, 유령인가.

지금껏 신문을 보면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
가 소위 「국립대 공동학위제」라는 것을 논의했다는
것이 전부다. 민주당중앙의 선거 공약과 전교조의 국
립대 총정원 선발 등의 주장이 있었지만 정부의 어느
누구도 폐지론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교육혁신위
관계자도 공동학위제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들의
일부일 뿐」이라고 해명했
다. 安秉永교육부총리는
「공동학위제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李海瓚총리도 서울
대 폐지론에 반대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런 정부관계자의 말을 믿는다면 서울대 폐지론은
유령인 셈인데 그렇다면 鄭총장은 유령을 상대로 싸
우겠다고 한 것인가. 그러나 유령이라고 하기엔 이곳
저곳에서 느껴지는 「법제」가 수상쩍고 돌아가는 겉새
가 이상하다. 우선 교육혁신을 추진한다는 이 정부의
교육에 대한 생각이 수상하다.

盧武鉉대통령은 몇 달 전 자기 형에게 돈을 준 서
울대 출신의 한 기업인을 향해 「좋은 학교 나오고 출
세한 사람」이라며 공개적으로 모욕을 가해 그를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게 했다. 이 정부에선 「좋은 학교

를 나와 출세한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있는 듯이 느껴지고, 서울대를 이른 바 기득권 세력의 하나로, 학
법주의의 원천으로 지목하는 듯 하다. 새 지배세력을
부리를 내리기 위해 전도를 하는 것처럼 기득권 세력
을 재가해야 새 지배체제가 확립된다는 발상에서 집권
세력 일부에 있는지도 모른다. 또 서울대의 우월성
을 폐지해야 교육사회화를 막고 지방 우수학생들의
서울 집중을 막아 지방 국립대를 살릴 수 있다는 주
장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그런 발상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교육문제점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21세기
의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
자면 국가적 차원에서 우
수인재 육성과 고등교육
강화가 필수적 요청이다.

서울대 폐지론은 유령?

대학의 수준과 질은 그 나라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그런 우수인재를 더 많이 공급할 생각은 없고 그나마
서울대마저 끌어내려 다른 대학들과 평준화해버리자
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다.

심지어 사회주의체제인 중국에서도 명문대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중·고교의 공교육이 황폐화되고 다른
국립대의 수준저하가 문제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국가
가 전력을 다해 해소해야 할 과제다. 영종하게 서울대
를 없애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명문
대가 더 많이 나오고 서울대가 더 많은 우수인재를
배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 아니겠는가.
(赫)

만든 는설위원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洞斗, 崔靑林, 李炯均, 南仲九, 金鎮錫, 金好俊, 宋鎮赫, 丘月煥, 洪性萬, 朴明珍, 李成俊, 安炳瓚, 李元龍, 安國正,
사달 李慶衡, 金鍾勳,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嚴基永, 朴時龍, 姜天錫, 朴聖姬 편집장 安興燮 편집기자 朴宰亨, 裴智媛, 金南柱 광고부장 金千鶴



노리나무장

크게 여론화하여 큰 상처를 만들어 가는 상무적 수법이

서울대가 유일한 국립대학교이던 건국 초기부터 국가 전체 체계에서 서울대 출신들의 지도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 그에 대한 반발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끝본보의 지도력은 건국 이후 외국 지사와 정치군인과 공인화사의 전유물이었다.

건전한 비판을 경계하며 받아들이는 것은 항상 옳은 자세이다. 문제는 비판의 건설성 여부이며, 비판의 요체는 주로 서울대의 수월성(적절한 말이 없어서 쓴다)에 관련된다.

서울대 입학성의 상대적 수월성은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시절부터 태생적이었다. 그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건국 초기부터 학문, 문화, 교육, 보건, 산업, 경제, 정치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큰 공적을 남겨온 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탐구문을 주장하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서울대 탓으로 보일지라도, 서울대가 우리 나라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이가 47.9%이고, 부정적인 이가 35.1%라는 여론조사도 있다.

서울대를 풍도는 이들의 주장은 학벌의 폐해와 입시의 폐단 두 가지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해결책으로 연립된 평준화가 주장되는데, 원하는 국민에게 똑같은 국립대학 졸업장을 준다는 것 같다. 이는 고등교육의 본질과 이상에서 크게 이탈된 것이며, 이미 혁명정부 시절인 1961년에 시행착오를 겪은

학사자격고시와 같이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 예견된다. 그들이 흔히 예로 드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도 그 실상은 기계적인 평준화가 아니라 높은 수준의 수월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임을 알아야 한다.

소위 학벌의 폐해는 서울대에 관한 한 다수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수월성이 있는 집단의 특성상 개인적 성취에 집착하고 조직적 집단적 압력을 받지 않는 것이 사실이며, 서울대학교가 전통을 달라하는 12개 전문 고등교육기관의 연립대학 체제로 시작된 것도 다른 대학과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다.

수월성의 추구는 모든 국가와 모든 대학의 목표이고, 오늘날과 같이 국가의 강력한 국제경쟁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 한 방법들은 자유

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사사로운 예기이다. 서울대에 입학한지 50년째, 가르치기 시작한지 42년째, 나의 젊은 날의 초상은 무엇인가? 끊임 없이 일어나는 학원소요, 기초생계비에도 크게 못 미치는 월급, 다섯 여섯 과목의 과중한 강의, 여름 무더위, 겨울 강추위, 텅 빈 창고 같은 연구실, 수없는 불면의 밤, 아무 보상도 없이



朴世熙
대한민국
학원원 회장

36년간 계속한 셈이나, 그런 셈이나 후 늦은 저녁 제자들과 함께 허기진 배를 채우던 짜구리 떡갈리의 맛... 그러면서도 꿈을 키웠고 서울대를 키웠다.

지금도 서울대는 결코 '좋은 학교'가 아니다. 서울대는 이 지구촌 구석에 있는 약간의 상대적 수월성을 지닌 학교일 뿐, 50년대를 살아왔고 영원히 살아야 할 민족이 자랑할 만한 절대적 수월성을 지닌 세계적인 대학은 아니다. 실제로 서울대가 연구다운 결과를 제대로 내기 시작한 것은 겨우 지난 십년 내외의 일이다.

이 어린 나무를 잘 가꾸어야만 큰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대학 하나만이 아니라 민족의 자산으로 몇몇이 내세울 수 있는 선진적인 대학으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난 50여 년간 서울대를 힘들게 키워온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이제야말로 소모적인 흔들기를 끝내고, 서울대의 빛나는 미래를 위하여 전국민이 격려의 박수를 보내야 할 때이다.

서울대학교에 큰 박수를...

경쟁에 의한 우수한 대학생의 확보와 그들에게 수월성 있는 교육을 꾸준히 시켜나가는 데 있다. 많은 나라들이 적절한 대학입시 제도를 택하고 그 제도를 장기간 지켜나가고 있는 데 비해, 우리는 왜 그러하지 못하는가? 부와 권력의 분배는 이상이 될 수 있어도, 수월성은 본래나 평준화의 대상은 아니다. 수월성은 끊임없는 노력의 목표이며, 그 과정에서 발현되는 것이지만 경쟁되어야 할 결과는 아니다. 최고의 수월성이 노벨상 수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넓고 깊은 학문의 세계에서는 극히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국민은 서울대학교의 허상에 집착하고 실상을 잘 모르고 있다. 서울대가 '특권적인 지위를 가지고 예산을 독식하며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왔

지금도 국방부이다. 학생들은 재학 중 월급을 받는다. 1학년은 80여 만원, 2학년은 1백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 철저한 산업계 엘리트 양성학교다.

프랑스는 일년에 대학 80만 명이 대학 입학자격시험(바칼로레아)에 응시하며 이중 70% 정도가 합격한다. 이중 6만5천명 정도가 그라제를 바칼로레아의 합격증을 받으며, 이들 중 1만7천명 정도가 그라제를 초과하여 에콜리비에 등록한다. 에콜리비에의 지위를 받은 소수의 고등학교에 설치되고 있다. 예과 2년의 스파르타식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끝

마친 학생들 중에서 2천2백명만이 '폴리테크니크'에 응시해 4백명만이 합격의 영광을 안는다. 영재 중에서 영재이다.

이들 그라제물들의 역사야 언제나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파리 고등사범학교'의 경우, 타대학들의 시기와 비전에 밀려 당시 국민회의와 결의한 한때 소르본느(파리 4대학) 부속사범대학으로 전락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재기의 노력을 했다. 결정적으로 1차 대전 이후 그것은 본격화했다. 대전 중 전제 재학생의 절반이 조국수호에 목숨을 바쳤음이 알려졌고, 그 결과로 이 대학 전체가 무공훈장을 받았다. 1927년 학장으로 임명된 베시모에 의해 독립학교로 재탄생했다.

지금 프랑스에는 3백6개의 그라제물이 있으며, 재학생 총 수는 9만17천명

수준이다. 매년 2만3천명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참다운 고등교육기관의 장치는 많은 희생을 치른다.

서울대학교는 우리 나라에서 프랑스 내 3백개 그라제물의 종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폐지문자들은 프랑스의 일반대학제와 비교하면 그렇게 체제를 보지 못한 것이다. 그라제물의 생명은 학벌주의와 영재주의 그리고 철저한 국가주의와 엘리트주의다.

서울대학교는 미국 대학들과 단체들에 의해 유일하게 미국 1백대 대학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학 3천6백여 개의 유니버시티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미국에서 1백대 대학에 오른다는 건 최우수대학이라고 본다. 주립대학으로는 UC버클리나 UCLA 그리고 위스콘신(메디슨), 시카고(엔.아비), CUNY(뉴욕 시립대학)처럼 중 일부 정도가 서울대학교의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국내도 사립대학들은 2백여권 밖으로 평가된다.

서울대학교에 대한 국제적인 객관적 평가는 바로 논문 SCI 순위가 35위라는 사실이다. 하버드의 재단 가용 재산이 약50억달러(60조원)이다. 이제 경쟁이 되겠다. 일년 예산 2천여 억원을 가지고 고서는 어렵지는 일이다. 우리 나라의 소위 일류 사립대학의 예산이 4천억원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와 서울대학교에 기울이는 관심이 얼마나 형편없나를 알 수 있다. 나는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그 정도의 연구비를 가지고 그 정도의 성과를 내었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라제물이 없는 프랑스는 존재하기 어려우며, 서울대학교가 없는 한국은 경쟁력이라고는 없는 '우리식'으로만 살아 수 밖에 없는 닫힌 국가가 될 것이다.

동문칼럼

한국의 경쟁력, 서울대서 나온다

서울대 폐지론자들은 골잡 프랑스 대학교육제도를 예로 든다고 한다.

관점의 차이가 있겠다. 필자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프랑스의 대학교육제도도 가장 심한 경쟁체제이고 엘리트 지상주의다. 서울대 폐지론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서 프랑스의 '그라제' 제도를 들었던 커다란 오해다.

프랑스의 대학교육제도도 이중적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일반대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반 국립대학제라고도 다른 하나는 그라제체제이다.

국립대학제도는 프랑스 정부의 지방화정책의 일환으로 정착한 대학교육제도이다. 그라제에 같은 학과는 파리와 지방을 비교하고, '파리와 사막의 비교'라고 표현했다. 1958년에 탄생한 제5공화국부터 심각한 파리지중주의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서 1969년 철저한 지방분권 정치체제를 두고 국민투표를 했으나 파리를 이기는 프랑스 국민들의 정서 탓으로 실패했다. 그래서 조르주 뫼로두 대통령 집권은 경제체제로서가 아니라 정책으로서 지방분권을 추진하게 된다.

1982년에 공표된 지방분권관련 법령이 그것이다. 지방에 개척되는 각종 영화촬영 등도 이런 정책의 일환이다. 그리고 프랑스 최고의 그라제물인 '폴리테크니크(ENA)'의 스트라스부르 이전, 등

도 이런 정책의 결과이다. 사범전문학교를 남부에서 위치한 보르도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이런 국가권력의 지방이양이라는 관점과 관련을 맺고 있는 일반대학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다.

그래서 1945년에 드골 정권의 각료였던 미셸 드브로에에 의해 국가최고행정학교인 '폴리테크니크(ENA)'가 창설된다. 단 한 번의 국가고시를 통해 국가의 실용성을 책임질 행정 전문가를 뽑을 수 없다는 생각이 기초라고 한다.

그라제물들이 꼭 이런 이유에서 창설된 것은 아니다. '국립고등사범학교(ENS)'는 2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수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이다.

국립 이공과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콜 폴리테크니크'도 2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학교는 나폴레옹이 공병을 양성하기 위해 창설한 학교가 시초였다. 그래서 이 학교의 주무부처는



鄭昭盛

(69년 文壇大率)

단국대 교양학부 교수



좌로부터 金學元·李大洋·丁海昌·成東實·玄應龍·李相赫·林光洙·李興熙·朴煥太 등

법과대학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시상

법과대학총회(회장 李相赫)는 지난 6월 15일 서울 프라자 호텔 덕수홀에서 본회 林光洙 회장, 孫一根 상임부회장, 金哲洙 논설위원, 許 應사무총장 등을 초청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랑스러운 서울법대

인」으로 故 金炳鶴 초대 대법원장, 故 俞鏞午(29년卒) 초대 법대 공창회장, 故 高東國 초대 법대 학장, 金性洙(52년卒) 나산장학회 이사장, 崔仁勳(52년入) 서울예술대학 명예교수, 故 趙英來(69년卒) 변호사를 선정

했다.

이어 올해 金壽, 古稀를 맞은 2회, 12회 동문들에게 축수패가 전달됐으며 「서울법대 1백년사」 발행을 위해 공헌한 朴秉濤(55년卒·모교 명예교수)·孫一根(51년入·한국일보 상임고문·본회 상임부회장)·金應龍(58년卒·前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金錫武(64년卒·前산요반도체 상임고문)·崔鍾廉(70년卒·모교 교수) 등 문예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법대인들이 베푼의 응집력을 발휘해 정의를 사수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엘리트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丁海昌(60년卒·좋은함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문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인도네시아지부

플프대회서 공대가 단체 우승

인도네시아지부동창회(회장 蔡相顯)는 지난 6월 3일 오전 7시부터 자카르타 근교에 있는 자고라워 캄프장에서 회원 37명이 모여 2004년도 플프대회를 개최했다.

공대, 농대, 상대, 문리대(법대, 사대 포함)로 구성된 단

과대학별로 상위 5명의 합계점수에 의한 단체전과 개인전이 있었다.

단체전 우승은 공대가 차지해 총동창회장의 순회배와 상금을 받았다. 준우승은 문리대, 3위는 농대, 4위는 상대가 각각 차지했다.

문리대 OB산악회

지난 7월 1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무즈타그아타(Muztag Ata·7천5백46m)로 문리대 OB산악회(회장 曹主煥) 대원 16명(평균 연령 53세)이 떠났다.

이번 원정은 문리대 산악회 50주년을 기념해 갖게 된 것으로 무즈타그아타 등반뿐 아니라 실크로드탐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지난 6월 23일 문리대 산악회 50주년 기념 및 원정대 발대식에서 만산 曹희장(70년卒·홍리모교 대표)은 「반드시 이를 끝내 두고 보라」며 부지를 불태웠다.

문리대 산악회는 정통 산악 운동과 아카데미 알파니즘을 구현한다는 가치를 내걸고 지난 54년 결성됐다. 그해 오대산 등반을 시작으로 70년 일

본 후지·남북알프스 전지훈련, 80년 남미 아콩카구아 등반, 85년 히말라야 히말주리 정상 및 실크로드 탐사 등반을 해왔다.

현재 종업해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모두 2백50여 명. 그러나 이 가운데 정예멤버는 60여 명 정도가 된다. 해외로 나가고 바쁜 생활 때문에 참석 못하는 동문들이 많다.

曹희장은 「최근 들어 재학생 산악회 회원들이 줄고 있어 걱정이 많다」며 「요즘 젊은이들은 등산을 「사서 고생하는 일」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재학생이 줄면서 OB회원도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이번 무즈타그아타 원정 및 실크로드탐사는 이런 침체된 분위기를 「일소」하자는 의미도 담겨 있다.

대원들은 이번 원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매일 2~3km의



평균 연령 53세 「실버 원정대」

중국 무즈타그아타 등반 도전

조깅과 마라톤으로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설악산 릿지·암벽등반, 겨울 한라산 등반 등으로 등반 기술을 점검해 왔다.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등반전문가를 초빙해 이론상으로도 단단히 무장했다. 卞赫洙(81년 工大卒·피에조닉스

대표) 등반대장은 「무즈타그아타는 웅만하지는 않지만 30~40도의 경사가 계속되는 산으로 재력이 관건」이라며 「특히 많은 대원들이 7천m가 넘는 산은 이번이 처음이라 고소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번 등반의 성패가 달려있다」

고 말했다.

대원을 가운데 최고령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장애인 등급 판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64세의 趙康一(64년卒)동문. 지난해 일본의 마우리 유이치(71세)가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아 조금 빛을 발하기는 했지만 趙동문이 무즈타그아타 정상을 밟는다면 이 산의 최고령 등반자가 된다.

그 뒤를 이어 尹錫泰(66년卒·61세·한강무역 대표)·金南洙(66년卒·59세·캐나다 거주)·盧瑞相(66년入·57세·한국리서치 대표)·金學中(71년卒·57세·엘컴사이언스 대표)·李昇昊(73년卒·55세·아주대 교수)·崔仲基(73년卒·54세·인하대 교수)·金逸明(77년 醫大卒·53세·강남병원 외과 과장)·朴基成(82년卒·45세·월간 「사람과 산」 편집위원)등문이 이번 원정에 참여했다.

(南)



대구·경북지부

제1회 「사랑의 음악회」 개최

대구·경북지부동창회(회장 池弘源)가 후원하고 지부 산하 젊은 동문들의 모임인 청년관악회(회장 李昊壽·83년 工大卒) 주최로 지난 6월 12일 대구 시내 대구오메리하우스에서 동문 및 가족, 일반 관객 1천5백여 명이 객석을 메운 가운데 「제1회 2004 사랑의 음악회」가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경북대 예술대학 林寶植(68년 舊大卒)교수가 지휘를 맡고 반주는 뉴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가 맡아 10여 명의 국내 정상급 성악가 동문과 함께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

음악회를 마친 후 金載熙(86년 社會大卒·대구방송 프로듀서)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리셉션에서 池회장은 「음악회를 통

해 지역사회의 문화활동에 기여하고 동문을 다수가 모여 화합의 장을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기회로 동문 간의 유대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테너 柳聖烈(65년 舊大卒·계명대 예술대학원장)·朴永植(77년 舊大卒·대구산업정보대학 명예교수)등문, 바리톤 金城吉(65년 舊大卒·모교 교수)·金元敏(67년 舊大卒·계명대 교수)·全誠煥(72년 舊大卒·대구가톨릭대 교수)등문, 소프라노 郭信亨(70년 舊大卒·한양대 교수)·金芳成(91년 舊大卒·울산대 교수)등문, 메조소프라노 尹賢珠(71년 舊大卒·모교 교수)등문 등이 참여했다. (李)

대전·충남지부

신입생에게 장학금 전달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應準)는 최근 각계 동문들의 추천을 받아 올해 모교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에 입학한

황준원 군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대전 전산동 일식당 「지중해」에서 장학금을 전달했다.

황군은 대전유성고 출신으로 고교 재학시절, 학업 성적이 뛰어나며 수학과과학사대회 금메달, 창의력경시대회 은메달 등 각종 수상 경력이 있다.



정보통신방송정책과장

KTF 본사 탐방행사 가지

정보통신방송정책과장동창회(회장 朴室相)는 지난 6월 4일, 올해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인 「업제 탐방」 첫 순서로 서울 테헤란로 KTF 본사를 방문했다. 이날 행사는 KTF 南重秀(79년 經營大卒)사장의 환영사, 表鉉明(9기·KTF 전무)동문의 「이동통신사업의 현황과 KTF 전략」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인터넷 데이터센터 견학, 팜 관리 센터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지리교육과

신임 회장에 閔興基동문 선임



앞줄 우로부터 세 번째 閔興基회장

지리교육과동창회(회장 吳洪哲)는 지난 6월 7일 서울 공덕동 동창회관 4층 연회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閔興基(63년卒·前경기고 교장)동문을 선출했다.

신임 閔회장은 「지리교육과를

나와 평생을 관련분야에서 일했을 뿐 아니라 이 학과를 통해 평생의 반려자를 만났기 때문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뭔가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다」며 「회장이란 직분을 동문들의 명령으로 알고 최선을 다

보건의료정책과장

국회의원 축하·세미나 개최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동창회(회장 金力詰)는 지난 6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뱅류룸에서 17대 국회의원 당선 동문 축하 및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홍공식(3기)사무총장 사회로 金회장 인사, 梁解政 보건대학원장 축사로 시작됐다.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鄭憲和(3기)·黃祐呂(3기)·金福鎭(4기)·沈在哲(7기)·李鍾杰(7기) 동문 가운데 이날 행사에는 黃祐呂·金福鎭동문이 참석해 축하패를 받았다.

이어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 金容益(77년 醫大卒·모교 교수)위원장이 「우리 나라의 미래사회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하졌다」고 말했다.

한편 동창회는 근조기를 제작해 동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의 : 吳興世총무이사 011-890-4623)

불어교육과

45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불어교육과동창회(회장 柳子李)는 최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모교 朴玉趾(52년卒)명예교수, 鄭平報(65년卒)교수를 비롯해 8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학과개설 45주년 기념 홈커밍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스승의 날 기념 감사선물 전달, 재학생 축하공연, 만찬 및 경품추첨 순으로 진행됐으며 답례사를 통해 朴玉趾명예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있었던 재미난 에피소드를 들려주기도 했다.

(南)



동문가족이 장기자랑을 하고 있다.

상과대학

모교서 가족동반 등산대회 개최

상과대학동창회(회장 차容晟)는 지난 5월 29일 모교 관악캠퍼스 노전강당 앞 버들골에서 동문 및 가족 2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산행은 저수지-승전거북전망대-해태상-행기장을 반환하는 코스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등산 후에는 버들골에 모여 음식과 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경품추첨 시간에는 李榮相(55년卒) 동문이 스쿠터에 당첨되는 행운을 안았으나 李 동문은 '동창회 사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부의 뜻을 밝혔다. 최다참가 기수상은 35명이 참가한 17기에게 돌아갔다.

이날 행사를 위해 하회장이 두산 펠소수 3백90리·맥주 4백8리, 宋三錫(52년卒·모나미 회장) 동문이 고급블렌 50세트, 朴昇(61년卒·한국은행 총재) 동문이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20매를 협찬했다. 또 李堉鎔(60년卒·대림산업 회장) 동문이 스쿠터 1대, 申東慶(53년卒·전국은행연합회장) 동문이 롯데백화점 상품권 5매, 唐甲周(63년卒·신승시흥 회장) 동문이 1백만원 상당의 신승 재품을 협찬했다.



앞줄 좌로부터 沈明鎔·田相龍·李孟成·黃迪倫 명예교수, 뒷줄 좌로부터 李益康(연세대 교수)·金榮哲(용인대 교수)·鄭浩永(국회도서관장)·尹一成(우신고 교사)·金吉中(모교 교수)·朴星洙(검북고 교사) 동문.

영여교육과 64학번 동기회

은사 모시고 한 자리에

영여교육과 64학번 동기회(대표 鄭浩永)는 지난 5월 8일 국회도서관에서 모교 李孟成(53년卒)·沈明鎔(58년卒)·黃迪倫(58년卒)·田相龍(59년卒) 명예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승의 날 기념 사은 행사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등을 관람한 후 국회 국민식당에서 만찬을 즐기고 사제지간의 정을 더욱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韓玲玉 作

「슬드락에서 2004 봄날」,
한지·수채물감,
62×93cm, 2004.

<작가마역>

- ▲62년 모교 미술 회화학과 졸업
- ▲69~03년 한국회화전 36회 출품
- ▲85~04년 홍원회 24회 출품
- ▲91~04년 개인전 6회
- ▲00년 서울대 정립 50주년기념 사진전전
- ▲03년 대한민국 여성회화페스티벌전
- ▲현재 홍원회 회장

도시·환경과워정책과정 국회의원 축하연 가저

도시·환경과워정책과정동창회(회장 吳元鎔)는 지난 6월 28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제17대 국회의원 당선동문 축하연을 개최했다.

도시·환경과워정책과정 출신으로 국회의원 당선자는 金學元(72기)·權哲賢(3기)·李錫玄(3기)·鄭長善(4기)·李啓安(7기)·李美慶(7기)·鄭夢準(7기)·元惠秉(11기)·諸熙吉(13기) 동문 등이며 이날 행사에는 金學元·諸熙吉의원과 환경대학원 출신 吳濟世(75년卒)·姜吉夫(84년卒)·禹濟恒(88년卒)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吳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체 동문수가 4백50명 밖에 안되는 작은 동창회에서 9명의 국회의원 나온 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환경을 공부한 분들에게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金善龍(6기)·경철종합학교 외래교수) 동문이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 당선동문들에게 「좋은 환경 복지나라」라고 쓴 친필 축자를 선물하기도 했다.

약학대학

전선 바둑대회 열어

약학대학동창회(회장 李金鎔)는 지난 6월 20일 서울 서초동 한일바둑회관에서 전선바둑대회를 개최했다.

A. B조로 나뉘 치수대국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A조 鄭大仁(71년卒) 동문과 B조 李錫鐵(74년卒) 동문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A조: 준우승 尹光洙(73년卒), 3위 朴秉東(66년卒), ▲B조: 준우승 沈寬實(56년卒), 3위 金一慶(64년卒), 특별상 金錫贊(82년卒).

의과대학

제26회 천선테니스대회 성료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吉女)는 지난 5월 30일 모교 연건캠퍼스 테니스코트에서 제26회 천선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가장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출전한 캠퍼스부에서 金滿禧(80년卒)·金容載(80년卒) 동문조가 張成根(77년卒)·鄭振錫(84년卒) 동문조를 때돌리며 우승트로피를 거머쥐었다. 老童部에서는 鄭奎澈(55년卒)·柳世英(62년卒) 동문조, 여성부에서는 張善孝(60년卒)·안주연(04년卒) 동문조가 우승을 차지했다. 1970~2000년대 졸업생으로 이뤄진 일반부 경기에서는 張基賢(71년卒)·鄭顯旭

(85년卒) 동문조가 朴顯浩(78년卒)·韓光佑(01년卒) 동문조를 물리치고 1위에 올랐다. 기타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점퍼연부: 준우승 張成根(77년卒)·鄭振錫(84년卒), 3위 尹東憲(67년卒)·高英超(77년卒)
▲일반부: 준우승 朴顯浩(78년卒)·韓光佑(01년卒), 3위 金柱漢(78년卒)·鄭弘根(66년 文理大卒)
▲老童部: 준우승 韓甲株(55년卒)·朱石基(58년卒), 3위 金錫永(56년卒)·朴熙熙(58년卒)
▲여성부: 준우승 金일규(03년卒)·정혜화(본과4년), 3위 김지은(03년卒)·이혜준(04년卒).

식품·외식산업보전 최고경영자과정

李鎬永동문 골프 1위 차지



식품·외식산업보전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韓基永)는 지난 6월 7일 경기도 남양주 비전힐스CC에서 제2회 총동문회장에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안·아웃 각각 12개 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경기에서 李鎬永(4기) 동문이 정확한 퍼팅 감각을 선보이며 74타로 우승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李敬春(12기) 동문이 1타 차이로 2위에 올랐다.

여기부 우승 트로피는 84타를 기록한 朴顯熙(11기) 동문에게 돌아갔다. 기말 우승은 종합 3백27타(최저타 4명 종합)를 기록한 12기가 차지했으며 4기가 준우승을 했다.



좌로부터 鄭浩永·閔寬植·李禮植·金應鎔·金善吉·禹景錫 동문

耳順테니스회

全兢烈·金明煥동문 팔순조 우승

耳順테니스회(회장 申東慶)는 지난 6월 5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테니스코트에서 32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42회 정기대회를 가졌다.

조별리그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全兢烈(48년 工大卒)·金明煥(51년 醫大卒) 동문이 팔순조 우승을 차지했다. 이순 A조에서는 高相睦(57년 商大卒)·裴繼賢(65년 師大卒) 동문, 이순 B조에서는 李昌建(54년 工大卒)·朴仁鎔(57년 師大卒) 동문이 각각 우승의 영예를 안았

다. 기타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팔순조: 준우승 金善吉(52년 商大卒)·韓甲株(55년 醫大卒), 3위 金應鎔(39년 醫大卒)·趙東三(54년 農大卒) ▲이순 A조: 준우승 金應鎔(58년 法大卒)·朴昌根(58년 師大卒)·沈金行元(58년 文理大卒)·沈載錫(60년 師大卒) ▲이순 B조: 준우승 金正澈(56년 工大卒)·金行元(56년 商大卒), 3위 車載准(56년 文理大卒)·姜信玉(61년 法大卒). (南)

국립대 공동학위제 등 대학평준화, 무엇이 문제인가?

기회는 균등하게 주되, 능력에 따른 교육해야

본보는 교육의 평준화 정책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예측해 보기 위해 해외의 유수대학의 교육정책, 엘리트 교육 사례 등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지난 호에 소개된 중국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프랑스의 교육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긴급 적담

② 프랑스의 대학교육

사 회: 모교 鄭振森총장께서 월간조선 7월호 인터뷰에서 「서울대 폐지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서울대 폐지론」, 「국립대 공동학위제」, 「대학 평준화」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元潤珠: 고등교육은 나라의 장래·운명과 연결된 것인데, 너무 성급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립대 공동학위제」, 「대학 평준화」라는 것은 잘못된 평등사상에 의해서 나온 것이며, 특히 서울대와 같은 대학을 여러 개 만들어야

폐지론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폐지할 것인가와는 상관없이 서울대 폐지론을 들고 나온 자체로서 정치적 메시지를 넣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대학 1~2년 사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왔고 그런 사이클을 반복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천에 프랑스의 좌파 시사주간지인 「르 누벨 옵세르바퇴르(le Nouvel Observateur)」에 「에나(ENA: 국립행정학교)를 불태워라」라는 특집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ENA의 지위는 어느 정도 서울대와 비슷한 편이 있는데,

을 구현하기 위해 생긴 그랑제콜(Grandes Ecoles)은 2백년 역사를 지닌 프랑스 특유의 엘리트 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랑제콜 출신들은 좌파이건 우파이건, 정치적으로는 답을 달라고 강경하지만 국가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하나로 통일돼 대처하고 있습니다.

金旻日: 그랑제콜이 전국적으로 대략 2백개쯤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고등사범학교

(Ecoles Normales Supérieures)와 예술 폴리테크닉(Ecole Polytechnique: 이공과대학), 광산학교(Ecole des Mines), 공제소제(ENPC), 상업학교(HEC), 정치학교(Sciences Po) 등 6개를 우선 그랑제콜이라고 합니다.

鄭振森: 1990년대 초반쯤에 프랑스 국회에서 그랑제콜의 폐지가 논의된 적이 있어요. 사실 그랑제콜이라는 것이 과연 대학교가 고등사범학교와 예술 폴리테크닉입니다. 물론 ENA도 있지만 그것은 그 다음 단계의 학교고요. 아무튼 국회에서 폐지를 위해 투표까지 할 뻔했지만, 이 두

특이한 것은 프랑스 중앙정부 조직내에 「ENA총합성 관리위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ENA를 졸업한 매우 우수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속칭 「ENA마피아」라고도 하죠.

鄭振森: ENA는 고등사범학교와 예술 폴리테크닉보다 더 많은 기회를 주어서 사회지도층을 양성하고자 새로 설립됐는데, 결국은 또 하나의 엘리트그룹으로 성장하게 된거죠.

金旻日: 프랑스에서 개각을 하면, 그 개각 방안 아래 우리의 경우 출신 대학별로 통계를 내듯이 프랑스도 ENA출신을 따로 정리해 놓고, 지난 번 내각과의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ENA출신이 아닌 사람들의 소위강 등을 얘기하면서 나오는 것이 ENA 폐지론이고, 교육개혁이 전국적인 토론의 테마가 되면 ENA 폐지론은 꼭 한번씩 짚고 넘어가는 거죠.

사 회: 지금까지 ENA중심으로 이야기되었지만, 프랑스의 그랑제콜은 기호군들의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출신 배경을 막론하고 머리 좋은 학생들을 능력에 따라서 차별화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기본 교육이념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군요.



元潤珠명예교수



金旻日교수



朴明珍교수



朴明珍교수

하는 단계에서 서울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신중하지 못한 극충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鄭振森: 서울대 폐지론에 대해서 鄭榮憲총장께서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냐는 측면에서 보면 서울대를 없애서 필일이 아니고 오히려 비슷한 수준의 대학을 10개쯤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란 1백년 내지 2백년에 걸쳐서 학문의 전통과 토양을 구축해 가는 것이인데, 조금 만들어질 만한 토양을 전부 갈아엎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元潤珠: 지금 우리는 미리를 평등하게 하는 것보다 기회를 평등하게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교육개혁에 있어서 머리 좋은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균등하게 줄 것인가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서 기회는 균등하게 주되, 재능이나 능력에 따라서 차별화된 교육을 해야한다는 얘기죠.

金旻日: 「서울대 폐지론」은 정책이라고 보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얻기 위한 매우 정치적인 구호라고 봅니다. 그동안 권력이 서울대 출신이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을 규합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서울대

“그랑제콜” 통해 엘리트 교육하고

일반 대학에서 폭넓은 교양인 양성

ENA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는 정치적 메시지를 얻는 데 있어서 「ENA를 불태워라」가 매우 효과적인 구호였을거죠.

사실 서울대의 주인은 서울대를 건립한 이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대의 건립 이념대로가 이 나라의 최고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란 서울대를 없애겠다는 것은 인재양성을 그만두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지요.

사 회: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프랑스식 대학의 평준화인데, 과연 프랑스에서 대학의 평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프랑스에는 어떤 교육정책, 엘리트 교육시스템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元潤珠: 프랑스 고등교육제도는 크게 평준화된 대학 체계와 전문직업학교 개념의 엘리트 교육기관으로 구분됩니다. 프랑스 각 대학의 고유명칭은 1968년부터 사라졌으며, 프랑스혁명의 평등이념

학교가 국가에 얼마나 공헌했는가에 대한 보고가 있을 후 무아였어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서울대가 지나고 있는 이념을 국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지도자 양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또 서울대가 과연 엘리트 교육을 위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元潤珠: 2차대전이 끝나고 프랑스 패망의 원인이 잘못된 엘리트 교육이라고 인식하고 드골이 세운 것이 ENA입니다. ENA의 지원자 수는 1천명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서 서류심사로 5백명 정도를 뽑으며 최종 합격자는 연간 50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은 이 ENA출신들이 정·재계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지요.

金旻日: 통계를 보면 ENA졸업생의 85%가 정부 고위관료가 되고, 12%는 주요민간 재벌그룹에서 일하고, 나머지 3%는 정계에서 활약합니다.

그리고 가끔 그랑제콜, 특히 ENA에 대한 공격과 비판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서울대 폐지론이 대두되는 것처럼 상당히 정치적 의미를 내포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군요.

그럼, 그랑제콜이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라고 한다면 일반대학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는 뭔가요? 어떤 수준의 인재양성을 위한 것인가요?

元潤珠: 프랑스 대학교육의 중요한 역할은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통로를 어떻게 만들어서 상호보완을 하는느냐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바칼로레아에 합격해야 하는데, 일반대학과 그랑제콜을 합치면 응시생 수가 1백90만명쯤 됩니다. 그러나 제한된 여건과 많은 학생수로 인해서 끝까지 대학 교육을 받는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金旻日: 바칼로레아는 크게 세 가지 계열로 나뉘어 일반바칼로레아, 기술바칼로레아, 직업바칼로레아가 있습니다. 또 그 각각의 바칼로레아는 세분화돼 있는데, 가령 일반바칼로레아의 경우는 문학, 과학, 경제학, 사회학 등의 하부구조로 나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바칼로레아의 응



시성 전부, 기술바깥로채의 80%, 직업바깥로채의 17%가 대학에 진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깥로채에는 6월에 치르는데, 어떤 계열이든 상관없이 프랑스어, 외국어, 역사, 지리, 수학, 철학이 공통 필수 과목입니다. 모두 치르는데 며칠이 소요되며, 항상 첫째 날에 치르는 철학시험은 출제 문제의 격조 높은 수준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해에 출제된 철학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가 되며, 국민 전체가 각자 한바탕 생각해보는 문제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하루동안에 치르는 우리의 수능시험은 전국의 60만명의 대학입학 후보생들중 1등에서 60만등까지 일렬로 세우는 매우 좋지 못한 기치를 각인시키고 있는 거죠.

元淵泰: 프랑스의 대학은 각 학교마다 교육방식 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교육과정은 1기 과정(premier cycle), 2기 과정(deuxieme cycle), 3기 과정(troisieme cycle)으로 구성돼 있으며, 과정별로 국가가 증서로서 그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2년은 1기 과정으로 일종의 교양 학부입니다. 학년말 시험에 합격하면 DEUG(일반 교양학부 학위)가 수여되죠. 그 다음 2기 과정은 학사(Licence), 석사(Maitrise)과정으로 각 과정마다 시험을 통과해야 상급 학위과정 등록이 가능합니다. 3기 과정은 DEA(박사예비과정)를 획득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랑제콜 출신도 박사학위를 위해서는 대학으로 가서 교육을 받게 되죠.

元淵泰: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사회에서나 인재가 필요한 양상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인재를 어떤 방식으로 길러내느냐가 문제인데, 프랑스 교육의 제일 큰 특징은 다양성이라고 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더라도 자기가 원하면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문호가 열려져 있다는 거죠.

사 회: 그러니까 엘리트 교육기관인 그랑제콜에 초거대 무장을 나타낸 학생들이 들어가고, 자기만성형의 학생들은 일반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출발해서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죠.

元淵泰: 학생들이 하하급 스스로 자기가 필요한 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소양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프랑스 교육의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대학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스스로 개발한다는 정신이 투철돼요. 자기 만들어온 틀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전공과 상관없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사 회: 그랑제콜과 일반대학, 양 기관의 교육기능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여기에 주시죠.

元淵泰: 그랑제콜을 나온 사람들은 자기 전문분야의 전반적인 오버뷰(overview)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향후 학문의 발전방향, 또는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회사에 추구되고 있는 제품의 방향에 대한 오버뷰를 갖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일반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절대 오버뷰를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학에서는 일반 교양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특수전문분야로 진출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코스라고 할 수 있죠.

사 회: 대학에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인재와 그랑제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인재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요.

元淵泰: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랑제콜은 각 분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엘리트층을 양성하는 교육이죠. 일반 대학은 그야말로 폭넓은 교양 교육을 통해 어느 분야에나 진출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키워주고 동시에 진출하고자 하는 특수분야의 전문인으로서 필요한 소양을 교육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 회: 우리 나라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국립대학 공동학위제의 경우는 프랑스 대학이 지향하고 있는 시스템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프랑스 대학의 편중과 개념을 완전히 오히려한 것이 아닐까요. 프랑스 대학들은 개별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와 유사한 법인으로 독립돼 있고 따라서 자활성

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죠.

元淵泰: 저는 교육제도가 사회를 앞서간다는 것이 참 이상해요. 교육제도는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대에 맞춰서 조금 늦더라도 잘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네, 우리는 무조건 서둘러서 제도를 바꿔놓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해요. Need가 어디에 있는지, 사회가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안돼 있는 거죠. 앞으로 인력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어떤 분야에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서둘러는 어느 부분은 옳고, 어느 부분은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좋겠는데, 단순히 편중화시킴으로써 학벌주의를 없애고 입시지옥에서 학생들을 구해줬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공부 아닌 다른 재주 있는 학생이 자기 능력 발휘하는 교육체제 필요”

이 최대한 보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탕위에 국가의 개입으로 대학간에 학생들의 이동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동학위제의 경우는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획일화된 체계 이기에 21세기 교육에서 이상으로 추구하는 자활성, 다양성 등이 말살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들이 있은대요.

金戊日: 서울대 폐지론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프랑스 대학은 공과대학의 점입니다. 일부 가톨릭대학을 제외하고 전부 무료로 학교를 다니게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경제학적인 측면을 따졌을 때 그 수혜자들이 아무런 불만이 없다는 거죠.

서울대 폐지론을 입안하고, 실현하려는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 나라 교육의 총체적인 볼륨을 최대한 확대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모든 대학들의 수준을 일정하게 맞춰놓으면 새로 비싼 교육정책·제도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이 매우 중성해졌다는 느낌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부가 대학간의 수준 차이를 매꾸기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元淵泰: 서울대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받아들이고 서울대 출신이라는 것이 사회에서 하나의 면허증 비슷한 효과를 누려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가 아닌 다른 능력과 재주를 가진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기 뜻을 펼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 잘하는 것으로, 다른 능력이 있는 학생은 그 분야로 진출해서 똑같은 대우

교육이 이런 사회적인 병리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어서는 안되겠어요.

사 회: 어떤 이들은 공부하는 능력 이외의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으려면 서울대가 없어져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元淵泰: 예를 들어 서울대가 없다면 연극을 잘 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 서울대가 있어서 못 받는다는 주장도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Solution을 찾아가는 차승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일종의 시기심에 의한 착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기심은 치열한 경쟁체제 속에서, Tolerance(관용, 포용력)가 없어서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사 회: 경쟁의 기준이 다양하면 그런 시기심이 많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공부 잘하는 게 경쟁의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으니...

元淵泰: 그것은 우리 나라 전체적인 산업과 사회의 구조가 그만큼 단순해서 그래요. 공부 잘하고 잘 외우는 학생밖에 고용할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Need에 의해서 우리의 판단기준이 형성된 거죠. 이제 정말 달라졌으면 합니다. 실제 달라지고 있고요. 예컨대 예술종합학교에서 배출되어 나오는 디자인이 서울대 출신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 회:鄭雲龍총장이 주장하듯이 지역대학을 실시해서 지역 인재를 다양하게 뽑아서 서로 섞여놓는 교육은 과정에서 다양성을 통한 사회적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회적, 산업

적 변화를 감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元淵泰: 그렇죠, 대학이 다양화되야만 인재가 길러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원래 대학의 목적이 그거예요. 다양성 있게 전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元淵泰: 그러나 너무 서울대가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것도 잘못이라고 봅니다. 완전히 백화점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 회: 여러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니 서울대의 개혁은 절실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혁은 필요하지만 서울대를 폐지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金戊日: 그런데 말 자체가 가지는 영향력은 서울대 개혁보다는 폐지론이 훨씬 더 강력하죠.

元淵泰: 서울대 폐지론자들의 주장 주변에는 서울대의 상징성을 없애버리자는 것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를 우리 사회의 모든 불평등의 상징처럼 간주하고 그 존재를 없애버리자는 것이죠. 지나친 주장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관련해서 서울대의 책임이 무엇인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元淵泰: 그런 문제는 개혁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국가정책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사 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인재들 키우기 위해 서울대 자체의 개혁 외에 어떤 조치들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元淵泰: 그 개혁정신을 국가가 다른 대학으로 확장시켜줘야죠. 그래서 서울대와 같은 곳을 여러 개 만들어야 합니다.

元淵泰: 포항공대, 예술종합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같은 곳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죠.

사 회: 좌담회를 정리하면서 서울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 말씀씩 해주시죠.

金戊日: 졸업생 입장으로 보면 최근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해 서울대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가만 놔두어도 일과성 이벤트처럼 넘어가리라 본거 때문에 너무 예민하지 소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元淵泰: 어떤 면에서는 서울대가 과거보다 내성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기회에 내실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元淵泰: 서울대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독립적인 자세에 대한 반성을 했으면 좋겠고, 다른 대학들과 동반자로서 성장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결국 정치적인 논리에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리= 安興基기자)

약학대학

부리를 찾아서

약학대학 동창회

의약품개발센터·약초원 등 첨단시설 자랑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약학교육 기관인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은 인류의 질병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신약개발, 의약품의 원료 및 자원의 개발과 의약품의 제조에 관한 이론 및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약학대학은 인류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고도의 전문화된 약학 전문지식인을 양성함과 동시에 신의약품개발과 관련된 기초 이론과 실제적 응용력을 겸비한 첨단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통해 국가 과학 기술 발전에 선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15년 조선약학강습소로 시작된 우리 나라 최초의 약학교육기관은 1919년 조선약학교를 거쳐 1930년 경성약학전문학교로 승격된 후 해방과 동시에 사립 서울약학 대학으로 개편됐다.

1950년에 다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으로 편입되었으며, 1967년 제약학과를 신설해 약과 과학과 구분하여 교육해오고 있다.

서울대학교 종합학제계획에 따라 1975년 8월 연건캠퍼스에서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후, 1981년 종합약학연구소를 설립해 국내 약학연구를 선도했으며, 1991년 신의약품개발연구센터가 한국 과학재단 우수연구센터로 지정되면서 국내 신약개발연구를 활성화시켰다. 1983년에는 교육연구재단을 설립해 약학교육과 연구 발전의 기초를 확보했으며, 1999년 BK21 인간생명과학연구단을 출범시켰다.

이외에도 약사들의 실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1988년 약학교육연구원을 설립했고, 경기도 고양시에 약초원을 조성하여 약학교육에 활용함은 물론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약용식물에 관심이 많은 전문인과 일반인의 교육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소 종합학제계획에 따라 2001년 연건캠퍼스 소재 천연물과학연구소 종합관 약학대학은 40여 명의 교수진이 최첨단 연구시설과 우수한 연구인력을 바탕으로 연간 2백여건 넘는 국제적 수준의 우수논문을 발표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물론, 미국 약학대학 상위 5% 이내의 경쟁력을 유지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관련 수상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또 신의약품개발에 필요한 제반 분야(합성, 천연물, 생명공학, 약리) 및 약

효, 안전성 평가, 수송체 개발 등)에 축적된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국내 의약품 산업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배출된 우수한 인재들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정부기관, 산업계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1세기를 대비하는 약학대학(pharmacy, snu.ac.kr)은 의약품에 관한 전문지식을 함양한 우수한 약사인력을 양성하여 세계 최고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더욱 성장 발전할 예정이다. 앞으로 첨단 연구장비 확충, 최정예 우수교원 유치, 탁월한 연구업적 달성 및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벤처 창업 유도를 통해 신의약품개발 관련 분야 및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세계 초일류 연구중심대학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

글 : 김건태(79년 藥大卒) 모교 약대 약학과 학과장



모교 관악캠퍼스 약학대학 본관 건물

■ 연 혁

- 1915년 6월 우리 나라 최초로 약사양성을 위한 조선약학강습소 설립
- 1930년 4월 경성약학전문학교로 승격
- 1945년 8월 사립 서울약학대학으로 개편
- 1950년 9월 국립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으로 개칭
- 1967년 1월 제약학과 신설 인가
- 1975년 8월 서울대학교 종합학제계획에 따라 관악캠퍼스 약학관(21동)으로 이전
- 1981년 3월 종합약학연구소 설립
- 1983년 3월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육연구재단 설립
- 1988년 6월 약학교육연구원 설립
- 1991년 3월 신의약품개발연구센터 설립(한국과학재단지정 우수연구센터)
- 1992년 6월 약학연구관(29동) 준공
- 1996년 6월 약초원 및 약용식물원 이전 조성(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 1997년 2월 동물실험연구동(141동) 준공
- 1999년 9월 BK21 인간생명과학 연구단 출범
- 2000년 12월 제약실습동(142동) 준공
- 2001년 11월 천연물과학연구소 통합

회보·홈페이지로 동문간 교량 역할 '특독'

1915년 6월 우리 나라 최초로 약사양성을 위한 조선약학강습소가 설립됐다. 그 후 조선약학교로 개칭되어 1920년 5월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1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현재까지 졸업한 동문들이 5천8백여 명에 이른다.

약학대학 동창회는 1957년 9월 故 李 堉慶(20년 朝鮮藥學校卒)동문을 초대 회장으로 정식으로 설립됐으며 조직정비, 회원규합, 장학사업 등을 계획 운영하기 시작했다.

1966년부터 1969년까지 3대 회장을 역임한 故 高 麗 益(33년 京城藥專卒)동문 재임 중에는 전 동문의 주소를 조사 확인하여 회원부를 제작했으며, 종신회비와 연회비제도를 마련해 동창회 재정 강화 및 기금조성에 주력했다.

4대 회장인 故 韓基澤(34년 京城藥專卒)동문은 당시 일본 경성약전 동창회의 협조로 조선약학교, 경성약학전문학교 출신 在日 회원의 명단을 입수하여 명부에 외국인 동문을 추가, 완전한 회람명부를 제작했다.

1980년부터 1984년까지 6대 회장을 맡은 尹相澈(51년卒)동문은 각 도 및 서울의 지회와 기별 동창회의 조직을 강화시켰으며 유공회원 표창, 재학생 장학금 및 학생회 보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또 「동창의 날」을 정하여 매년 동문 친목과 화합을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1982년 제1회 동창의 날 행사 개최)하는 등 동창회의 중흥기를 맞았으며, 현재까지 「동창의 날」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7대 金永鎔(53년卒)회장 재임시에는 동문들의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동창회보 발간을 계획, 1984년 5월 「동창회보」 창간 제1호가 발간됐다. 현재 제간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동창회보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근황이 소상히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동창회 2004년도 정기총회

2004년 2월 28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



지난 2월 28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

■ 연 혁

- 1957년 9월 1일~1961년 2월 26일 정식으로 동창회 설립, 초대 회장 李堉慶동문 선임, 조직정비, 회원규합, 장학사업 등 계획 운영
- 1966년 6월 24일~1969년 2월 26일 3대 회장 高麗益동문 선임, 회원명부 제작 및 종신회비·연회비제도 마련
- 1969년 2월 26일~1973년 2월 26일 4대 회장 韓基澤동문 선임, 在日 회원명단 입수, 해외 동문을 추가한 회원명부 제작
- 1984년 2월 25일~1986년 2월 25일 7대 회장 金永鎔동문 선출, 在日 동문회 「藥窓會」 일본지부로 개칭, 해외주조직장, 동창회 기금조성
- 1984년 5월 「동창회보」 창간 제1호 발간, 현재 제58호 배포
- 1991년 9월 12일 모교 9개 교사에 「교직비」 건립
- 1992년 2월 25일~2004년 2월 28일 李堉慶동문 13~16대 회장 연임, 동창회 기부 및 기별 조직정비, 기금조성사업 확성
- 2002년 11월 女동문모임 월례회 「여동문회」로 정식 결성
- 2004년 2월 28일~ 현재 제17대 회장 李金鎔동문 선출

소개될 뿐만 아니라 정기모임, 기별모임 안내 및 활동 사항을 알 수 있는 교량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다. 20주년이 된 「동창회보」는 지난 1월 제58호가 제작 배포됐다.

10~11대 회장을 역임한 故 韓 韓承(56년卒)동문은 지금까지 집필받은 사업을 재정비, 계승 발전시켰으며, 모교 및 교사(1918년 이래 조선약학교, 경성약학전문학교, 서울약학대학, 국립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사)가 개인에게 불하되어 월리게 됨에 따라 한국 약학교육의 발전지로서 유서 깊은 산악원이 자리했던 유지임을 기념하기 위해 1991년 9월 12일 「교직비」를 건립했다.

약학대학 동창회는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에는 동창회 홈페이지(snuap.or.kr 또는 snuap.org)를 개설해 동창회와 동문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제17대 임원진이 결성됐으며, 일부 동문들로부터 활동이 이루어졌던 지금까지의 모습에서 벗어나 더욱 폭넓은 세대를 아우르기 위한 동창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동참하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변화하고 팽창하는 동창회로의 변화가 기대된다.

글 : 李金鎔(59년 藥大卒·일동대학 회장)회장

공과대학 동창회 南正熙회장

신임 동창회장
인 박 병

최고산업전과과장 동창회 趙源熙회장

“지식기반 사회 위한 공학교육 필요”



지난 5월 16일 공과대학 동창회는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4명의 동문과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 신임 회장에 南正熙(61년주·대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동문을 선출했다. 이에 南회장을 만나 모교 지원과 동창회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공대 동창회만의 자원이 있다면.

「공대 동창회만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공대 동문들의 애교심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창회는 과별 동창회가 각기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전체 공대동창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동창회의 자랑이라면 자랑일 것입니다. 모교에 대한 애착심을 가진 동문들이 많다 보니 공대 교육재단을 통한 모교 지원도 비교적 꾸준해 지속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엔지니어하우스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엔지니어하우스는 공대 동문들의 애교심의 일대난 작품인데 특히 전임 회장과 회장들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완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엔지니어하우스 시설 중에 특히 강당과 식당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 기회에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시설은 다른 대학 동문들도 이용할 수 있으니 필요시에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1세기 공학교육의 방향은.

「과거 경제 성장기에 엔지니어들이 산업발전에서 상당히 기여했는데 앞으로 엔지니어들의 역할을 빼놓고 선진화를 운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급속히 변모해 가는 글로벌시대에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엔지니어의 모습은 산업화시대와는 달라야 합니다. 과학기술과 경영분야의 식견을 함께 갖춘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공학교육의 틀이 획기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공계 출신 지도자나 CEO가 많이 배출돼야 할 텐데.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계에서도 지도자나 CEO가 많이 배출돼야 하겠지요. 우물 안에서가 아니라 우물 밖에서 활할 수 있는 인재들 말입니다. 지나치게 출세 지향적인 우리 사회의 풍토가 변하고 직업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고 계신 일에 대해 한 말씀.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는 국내외에서 발전소나 화학공장을 비롯한 기간산업분야 제조시설의 터키 건설과 함안,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분야의 해외진출 능력은 국가경쟁력의 척도인데 우리 나라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꾸준한 노력으로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南회장은 美우스프린대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캘리포니아 소재 Parsons사에서 근무했으며 대우엔지니어링 사장,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산학의 회장 등을 맡고 있다.

“끈끈한 유대관계의 저력 보여주겠다”



지난 5월 10일 최고산업전과과장(AIP) 동창회는 서울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제8대 회장에 趙源熙(29기 AIP·A&A 대표) 동문을 선출했다. 이에 지난 6월 15일 趙회장의 사무실을 방문해 신임 동창회장으로서의 각오와 동창회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동창회만의 특징이 있다면.

「상상대로 단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동창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6개월 과정으로 일주일에 두 번 수업을 듣는 정도가 만남의 전부인데 졸업 이후 이렇게 잘 단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체 회원수가 1천6백여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통 모임에 참석하는 인원이 3백여 명 정도 되니 그 참여 열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끈끈한 유대관계가 이들에게 형성돼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동창회의 저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임 회장으로서 각오 한마디.

「앞서 말씀 드렸지만 AIP동창회는 단순한 동창회가 아닙니다. 동문 대부분이 사회에서 전문 기업인으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창회 활동에

참여하기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동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 선배 회장 및 운영 위원들의 노고가 얼마나 컸는지 또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무한한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통을 지속 발전시키고 동창회의 저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것을 다짐해봅니다.」

-모교 발전을 위한 동창회의 역할은.

「우리 동창회 회원들은 주로 다른 대학의 학부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이 점 때문에 객관적이며 날카롭게 서울대를 좀더 발전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춘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서울대에 대한 애착심도 학부 출신 못지 않게 많아 서울대를 더 발전적으로 키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A&A 사장을 맡고 계신데.

「우리 회사는 경공업 제품을 취급하는 무역회사이며, 주로 가방 종류를 다루고 있습니다. 1989년 설립했으며 1992년에는 국내 물가·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이 예상돼 중국진출을 시도했습니다. 남보다 앞서서 토대를 닦은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수출인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국내 경제가 침투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세계 경제가 좋은 상황이 때문에 국내 경기 또한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침체에 들어간다면 우리 나라 경제는 깊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며 지금보다 더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좀더 나은 품질과 서비스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趙회장은 1974년 중앙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한통운 국제 영업부에 입사, 다양한 무역 실무 경험을 토대로 미국 현지 무역회사를 설립하는 등 국내외에서 무역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李)

동문기자 취재후첩

한국 정치사를 웅변하는 「JP의 초상」

새 천년을 목전에 둔 1999년, 金大中대통령 시절, 金鍾泌국무총리가 프랑스를 방문했다. 수행기자들이 파리의 유서 깊은 한 음식점을 찾았다. 조용한 아집의 나라, 동양 기자들에게 관심을 보이던 주인은 놀라워했다. 「아직까지 (JP가) 총리로 있습니까?」 70년대 초 朴正熙전국 시절 金鍾泌국무총리가 찾은 음식점일 줄이야. 딱히 주인에게 그때와 지금 한국의 국무총리가 같은 사람이지만 30년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재간을 설명하기, 기자들은 난감했다.

1996년, 아프리카 상해안의 코트디보য়ার라는 나라로 출장을 간 적이 있다. 수도 아비장은 아프리카의 파리라고 불리는 곳이다. 바다를 끼고 열대풍의 프랑스풍 이비자 호텔에 JP가 머물렀다는 기념석이 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60년대 말 일명 「자비반 타의 반」, 외유 내재 JP가 그곳에 머문 적이 있음을, 귀국하고 나서 알았다.

JP, 술한 수석이 붙는다. JP라는 이름은 1960년 이후 한국정치사의 굴곡, 고비 마다에 자리했다. 공파의 평가를 떠나 현대정치사에서 JP를 지우면, 제

대로 읽혀질 수 있을까. 朴正熙정권 시절은 물론 80년대 이후 엇그제까지 JP는 주인공은 아니었어도 무시 못할, 무시할 수 없는 조연이었다.

10년 가까이 정치부, 정당담 기자로 일하면서 JP는 사들지 않는 기사 대상이었다. 1994년 새내기 정치부 기자로 여의도 민자당사를 출입했다. 당대표 실 주인은 JP.

3당 합당을 통해 金鍾三대통령 탄핵에 결정적 역할을 한 JP에게 주어진 2인자 명목이었다. 즈음에 집권 중반기로 접어드는 YS계는 JP를 밀어내려 했고, 결국 밀어냈다.

1995년, JP는 몇몇 충청권 의원들을 데리고 「초라하게」 란 답했다. 당시 실세 姜武幹사부총장은 「JP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1년 후 15대 총선에서 JP는 「화려하게」 부활했다. 자민당은 충청권을 폭식하고 TK에서 1당 지위에 올랐다. 남은 YS정권의 명운은 JP에게 주어졌다.

1997년 대선, 한나라당 李會昌후보측에서 JP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왔다. 협상도 끝났다. 李후보가 최후정점만 찍으면 됐다. 하지만 李후보는 손을 내

梁權模

(89년 社大卒)
검찰신문 정치부 기자



밀기를 거절했다. 그 공간을 DJ쪽에서 파고들었다. DJ는 상야에 청구동 JP집을 찾아가 DJP연합을 이뤄냈다. 정계 은퇴를 번복한 강태, 영남권과 보수층의 공고한 비토, 불가능할 것 같은 DJ 집권의 길이 트였다.

DJ집권과 함께 JP는 절반의 권력을 향유했다. 이윽하여 공동정부, 1961년 중앙정보부장 때 못지 않은 「JP의 힘」

으로 정해졌다.

2000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JP는 다시 집권세력에게 「짐」으로 다가왔다. 「지더라도 서산을 붙여 물들이겠다」는 JP. 결과는 자민당의 원내교섭단체 확보 실패. JP는 가는 듯했다. 하지만, 집권당은 의원들에 이적자를 이적시켜 교섭단체를 만들어주는 회대의 「의외 편주기」 소극까지 벌이며 JP에 매달렸다.

이렇게, 정치부 기자 시절 내내 JP는 「상식적(?)」 권력을 배반했다. 해서, 연세부터가 (정치부 기자라고) 주변에서 JP를 불으면 「불가사의」라는 레토릭이 먼저 나왔다.

그 JP가 4월 19일 (백일이 필요하)다 정계를 은퇴했다. 헌정사상 첫 10선 고지에 도전했으나 결국 실패했고, 자민당 의석은 4석에 그쳤다. 그대도 은퇴는 안하고 2선 후퇴쯤 아날까. 일각의 관측을 배반(?)하고 「43년간 정계에 몸을 담았고 이제 완전 연소돼 재가 되었다」는 평언(?)을 남기고 총총히 정계를 떠났다. 그리고 얼마 후 정치자금 문제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조소도, 기소되기도 「처음」이라는, 해설이 낯설었다.

17대 국회 의원회관 221호 문패는 JP에서 장에인인 원린우리당 張善澈의 원으로 바뀌었다. 총선 결과를 놓고 정치개혁, 주도세력 교체, 세대혁명 등의 다각적인 의미가 부여된다. 17대 총선이 만들어낸 정치적 변화를 가장 선명한 것으로 음면하는 것이, 신년차 정치부 기자에게는, 「JP의 초상」이다.

「꿈의 고속철」 그 실체를 들여다보다

12년의 대역사 끝에 「꿈의 속도」를 자랑하며 개통한 고속철도. 그러나 자칫 「재앙의 속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 만일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의무라고 본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4월 1일 개통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의 안전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다. 유사 이래 처음 들어오는 고속철, 게다가 외국의 기술을 그대로 들여오는 만큼 객관적인 안전성 평가는 필수적이었지만 「정말빛 미래」만 선전하는 철도청의 주장만 그대로 보도될 뿐이었다.

하지만 고속철도 내부자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고속철도의 핵심부인 동력전달장치가 돌아 스며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철도청이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 열차는 전제 12개의 동력전달장치 가운데 11개가 결함이 발생했다.

또 개통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만 이상의 열차가 크고 작은 갖가지 결함이 발견돼 시정응행 불가판정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속철도 정비팀장 자료를 단독 입수해서 증명했다. 고속 수월시 선로의 지각이 파면서 위험한 상황이 빚어진다라는 사실도 철도청 고위 관계자의 해명과정에서 처음 확인했다.

CBS 보도가 나가지 그 때까지 여러

차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철도청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 프랑스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도입 당시에는 없었다. 때때로도 같은 현상이 발견됐다는 식으로 수도 없이 말을 바꿨다. 결국 결함 보완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도 고속철은 달리고 있다.

철도청 간부들의 태도는 더 문제였다. 한 고위 간부는 4월 1일 초기 개통에 차질을 빚을 경우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다른 간부들과 함께 일괄적으로 미리 사표를 써서 제출해 냈다고 귀띔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의미였지만, 군사적 사설의 구태가 반복되는 것 같아 씁쓸했다. 게다가 개통 직전인 3월 19일 나흘에 걸친 최종 운행 점검에서는 갑자기 차량 검사기준을 대폭 낮춰 결함은커녕에 대한 의혹마저 일었다.

차량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인 F3급에서 선두 기관차의 주행과 제동기능만 점검하는 F11급사로 대체할 것을 철도청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지시했다. 개통을 앞두고 고속철을 둘러싼 감시를 없애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마치 「조개개통 강박증」에라도 걸린 것 같은 철도청 간부들의 태도는 개통 직후 터져 나온 기계결합을 대하는 태

鄭台泳

(00년 人文大卒)
CBS 사회부 기자



도까지 이어졌다.

철도청은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초기 운행률이 높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안전운행을 담보할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고, 결과적으로 CBS의 보도가 사실로 판명되고 있다.

당시 지적했던 출입은 개폐 고장 같은 사소한 고장으로도 고속철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동력전달장치 같은 기계결합과 선로 주변 안전문제도 심각해서 잇단 수습 차례에 걸친 운행차량과 무단횡단 사고로 승객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시속 3백km라는 엄청난 속도만큼 작은

결함 하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지난 96년과 98년 독일 ICE와 프랑스 태세베의 사고가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한다.

고속철은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안전하고 정확하게 달려야 한다. 사소한 결함으로도 엄청난 속도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한 점의 부주의함도 없어야 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취재마저 밖에 부닥칠 정도로 정보 통제가 심했다. 고속철도가 외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했고, 사실상 정비와 설계변경 같은 사후 보완 기술 역시 아직은 국내 이전이 안 된 상태다. 따라서 전문적인 조언을 듣기가 무척 힘든 상황이고, 고속철에 정통한 사람들은 대부분 철도청 편에서 있는 인사들이었다.

이처럼 높은 취재장벽에도 불구하고 내부자 고발과 제보, 확인 취재과정을 거쳐 접근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 심층 보도한 정에서 기치가 있다고 본다. 또 개통 이전에 고속철의 안전문제를 사실상 처음 부각시켰고, 개통 이후 잇따르는 운행차량 사태를 통해 역설적이게도 보도의 객관성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철도청은 그러나 승객편익상의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대책을 내놨을 뿐 안전운행을 담보할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CBS가 기계결합 등과 함께 지적했던 바, 방재 시설이 미흡한 터널과 안전사고에 노출된 건설물 등 고속철 안전운행 인프라가 부실한 점은 꾸준히 지적해야 할 대목이다.

학계의 동향

예술의 전당 **金容培** 사장

미학 전공·피아니스트 출신

“티켓가격 내려 문턱 낮추겠다”

『제가 피아니스트가 된 것은 좋은 음악을 남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지난날부터 연주자가 아닌 예술의 전당을 경영하는 입장에 서게 됐는데 이 자리 역시, 음악과 예술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5월 3일 예술의 전당 신임 사장장에 선임된 **金容培**(76년 人文大) 동문은 “음악전도사”라 불릴 만하다. 30대초, 라디오 클래식음악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했고 30대 후반엔 청라 연주자로서의 명성을 날리다 4월까지는 주계 예술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런 그가 최근 미학과 출신 피아니스트라는 독특한 경력과 문화예술인으로는 처음으로 예술의 전당 사장에 선임돼 여러 매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문화예술인으로써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다행히 전임 사장님들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꾸며 놓으셔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金容培은 요즘도 꾸준한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다고 했다. 예술의 전당 사장 취임 전 약학단 연주회도 계속 참여하고 있다. 지난 6월 17일에는 제주시향과 협연을 갖기도 했다.

『저는 지금도 기본적으로 피아니스트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기가 끝난 뒤에 돌아갈 곳도 무대고요. 제 이름을 건 연주회나 큰 무대에 서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청소년 음악회 등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작은 무대에서 꾸준히 연주를 할 생각입니다.』

그가 피아노와 인연을 맺은 데는 어머니와 영향이 컸다. 『남자가 무엇을 하든지 피아노를 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느냐는 어머니의 권유로 피아노에 입문, 모교 음대 鄭鎭宇명예교수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金容培은 『미학과를 나와 늦은 나이에 피아니스트의 길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실력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鄭鎭宇님으로부터 익힌 탄탄한 기본기 덕분』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음악을 전공하지 않고 미학과에 진학하게 된 이유는 뭘까?

『피아노를 배울 때부터 피아니스트

가 되리라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도 바라지 않았고요.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말에, 음악을 전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공부한다고 피아노 연습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음악은 너무 좋았고 결국 음악과 연관 있는 분야를 찾다보니 미학과에 입학하게 된 것이죠.』

최근 미학과 동문들이 문화예술계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는 『미학과 출신들의 특성, 즉 예술적 감성과 논리적 구조가 내재돼 있는 선함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金容培은 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 미학과 동문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黃芝雨원곡원장과 한양대 羅敏熙교수를 손꼽았다.

끝으로 예술의 전당 운영 방향에 대한 질문은 『비합리적으로 책정된 티켓 가격을 내려 문턱을 낮추고 일부 연주자들에게 과도하게 책정한 출연료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재조정하겠다』며 『무엇보다 젊은 예술가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金容培의 가족 가운데 첫째 여동생 金善庚(78년 家政大)경원대 교수, 매제 梁承泰(70년 法大)특허법원장, 막내 여동생 金善庚(81년 高大)충남대 교수가 동문이다. (南)

육순에 배낭메고 일본 일주

차賢信(66년 商大卒)전북대 교수

동문 여행 체험기

1인당 90만원의 경비로 일주일 동안 일본 4대 도서 일주. 그것도 내일 모레 80세를 바라보는 대산배와 함께 배낭을 메고. 이것이 필자가 지난 5월 8~14일(6박7일) 다녀온 일본 여행이다.

이번 여행의 아이디어는 내가 평소 가깝게 모시는, 일본 여행경험이 30여 차례나 있는 K선배가 내었고, 이에 더해 몇 차례 단기출장 또는 방문경험은 있지만 일여 구사능력이 없어 일본에 문화인만, 그래서 혼자서는 여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필자가 적극적으로 K선배를 끌다 동행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의 여행 방식은 최소의 경비로 보통의 여행자가 찾기 어려운 오지들 여행하고, 특히 27년생인 K선배는 교통 같은 국가여행을 통해 당산의 정신 및 육체의 한계를 재검토하고자 하는 각오가 남다르다.

그래서 일본 왕복은 釜山 페리 2등, 일본 국내교통은 JR Pass 7일권을 이용했다. 패스는 그린(특급)과 보통 2종이 있는데 가격이 9천5백엔 미만이던 우리는 야간에 많이 이동할 것을 염두에 두고 보통 안락한 그린 패스를 구입했다.

이번 여행의 키워드는 일본의 절과 고찰 수 있다. 전국에 그늘같이 깔려 있는 네트워크, 이용 가능한 출발편수가 매우 많고, 연발과 연하의 거의 없는 시간 엄수, 청결함과 신라학, 친절함 역무 열과 승무원의 복무자세 등 이미 몇몇이 필자 같은 초심자를 감탄시키기에 충분했다. 다만 우리처럼 패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요금이 거의 살라진(?) 것이 문제다.

우리는 이번에 큐슈 남단 이부스키(指宿)에서 홋카이도의 최북단 소야 미사키(宗谷岬)까지 일본 4대 도서의 땅을 두루 밟았는데 일주일 주요 여정을 소개한다.

5월 8일 : 시모노세키(下関) 도착, 고쿠라(小倉)에서 JR 패스 발급, 신칸센으로 신 오사카-도쿄-하치노헤(八戸)까지 동북선, 일반 열차로 아오모리(青森)-요시오카(吉岡) 해저터널-삿



도야(洞爺)의 활화산 소와신잔(昭和新山)에서(左 필자).

포로-와카나이(稚内)까지 밤새 북상. 5월 9일 : 오후 1시 28분 와카나이 도착, 버스로 일본 최북단 소야 미사키 방문, 흐린 날씨 때문에 시달린은 육안으로 관할 못함. 오후 11시 특급으로 아사히카와(旭川) 출발.

5월 10일 : 아사히카와를 거쳐 오전 8시 30분 가미카와(上川) 도착, 버스로 소운코(層雲峯) 협곡과 눈이 덮인 2천미터 이상의 고산이 연이은 다이세쓰잔(大雪山) 국립공원 관광, 삿포로 경유 오후 4시 46분 시코츠 도야 국립공원의 도야(洞爺) 도착, 황화산(山) 쇼와신잔(昭和新山) 관광, 민슈쿠(民都) 오전 11시.

5월 11일 : 아침 도야 출발, 히피다테

(館) - 아오모리 - 아키타(秋田) - 니이가타(新潟) - 가나자와(金澤) - 교토(京都)까지 낮밤으로 서남행.

5월 12일 : 이른 새벽 교토 도착, 교토와 나라(奈良) 관광 후 오사카와 오가사와라(岡山)에서 환승, 세토 오하시 해상 철도를 건너 다카마쓰(高松) 도착, 다시 오가사와라와 고쿠라를 거쳐 자정 무렵 미야자키(宮崎)를 향해 남하.

5월 13일 : 미야자키 경유 가고시마(鹿児島) 도착, 우천으로 사쿠라지마(櫻島) 관광 대신 이부스키 모래힐링 온천, 근대 개항물 큐슈 신칸센으로 신아스시로(新八代) - 구아모토(熊本) - 하카타(博多)행.

5월 14일 : 하우스텐보, 후쿠오카 시내 관광, 오후 8시 페리 편으로 부산 항발.

누가 走馬看山이 아니냐고 해도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많은 시간을 철길 위에서 보내야 했기 때문에 같이 있게 보고 체험하지는 못했다. “하자를 떠내면서 호류루유(法師)를 보지 못하고 가고시마까지 가서 메이지유신의 풍운아 사이고 다카모리의 유적을 찾지 못한 것도 아쉬움이 있다.

이번 여행을 하고도 필자가 일본 문화의 찬을 면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홋카이도의 광활함을 보았고, 이제는 하체노베, 아사히가와, 미야자키가 일본 지도의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게 됐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여행경비를 청산해 보자. 우리는 각자 1백만원씩을 각출, 공동으로 경비를 지출했는데, 출발전 국내에서 JR 4대, 왕복 페리 티켓 구입에 1백11만7천원을 지출하고 남은 원화를 환전한 8만2

천원만을 가지고 일본에 입국했는데 집행결과는 ① 현지교통비 1만1천엔 ② 식음료비 2만8천5백엔 ③ 숙박비 1만2천엔 ④ 기타(입장료, 전화요금 등) 1만2천5백엔, 계 6만1천4백엔으로 1만8천엔의 잔액을 남겨 결국 1인당 총 여행경비는 약 90만원이었다.

처음 여행방향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쓴 경비는 더 이상의 절약이 어려울 정도의 경제여행이었다고 생각된다. 일본 여행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효과적으로 절약했다고 생각된다. 일본 국내 6박을 제대로 된 숙박은 1백엔이었으니(그것도 온천 민박으로 24시간 포함 1인당 4천5백엔으로).

실상은 모든 역구내에서 판매하는 5백~1천엔 수준의 「에게 뽕」과 접리면 등을 이용했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면서도 한 두 잔의 부드러운 니혼술(日本酒)나 로컬 비어를 즐기는 여행의 재미도 빠뜨리지 않았다.

같이 나서면 사람들을 만나고 따뜻한 인정을 맞고게 된다. 첫날 고쿠라에서 출발할 때 여객무원이 아오모리에서 접속되는 와카나이행 아칸열차가 없다고 말해 숙박문제, 일정차질 등을 걱정하며 남쪽계 아오모리에 도착했는데 자신들의 입막우였었다며 삿포로 경유 와카나이행 승차권을 준비해 우리를 기다린 그 역무원, 소운코로 가기 위해 가미카와에 도착해 아침 식사를 찾은 우리에게 식당 명이 열지 않았으니 커피를들 시오라테뜨어는 물과 녹차를 대접해 준 역원의 80세가 대와 보이는 담배가게 할머니. 도야 온천 민박에서 저녁식사 후 서비서라며 자기가 제일 좋았다는 니혼술과 직접 저술했다는 죽순, 말린 연어로 우리를 대접해 준 사자까지 내외가 생각난다.

매단할 줄 없는 경이이지만 인적교류가 더욱 늘어나고 상호호혜가 보다 깊어지면 한일 양국이 “가깝고도 가깝은 이웃으로 빚잡힐 것”이라는 소박한 믿음으로 여행대모를 정리해 보았다.

서울대 가족

高炳佑 한국경영인협회장

11명이 동문, 전공·직업도 '형형색색'

“조금만 앞서가되 항상 노력하는 삶” 강조

30년간 주인이 한번도 바뀌지 않은 서울의 어느 단독주택. 古稀를 넘긴 집 주인은 아침 운동을 한 뒤 마당과 집 앞을 쏘다 지나가는 이웃과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1남3녀를 모두 출가시키고 부인과 단 둘이서 생활하기엔 조금은 넓은 집이지만, 그는 어느 날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 e메일로 그 날의 안무보고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가족들의 체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유서(2) 같은 이 곳의 터줏대감인 高炳佑(56년 高大卒·한국경영인협회장·분회 부회장)동문, 그의 생활만큼은 다양한 형태로 채워져 있다.

58년부터 고교 교사·대학 교수로 봉직하다 63년부터 경제과학심의위원의 상공 담당관, 농림부 농업개발국장, 대통령 경제비서관, 건설부 장관, 쌍용증권·투자증권 사장, 증권거래소 이사장, 동계유니버시티아드대회 조직위원장, 동아건설산업 회장, 서울상대동창회장 등 20년의 공직생활과 15년의 CEO생활을 지냈다. 현재 그는 기업인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국익을 위해 더욱 봉사하도록 지원하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다.

高동문이 각계 분야에서 쉬지 않고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부인 李禧朱(60년 家政大卒·前경기여중 교사)동문의 정성스런 내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장남(高承範·85년 社會大卒·금감위 감동정책1국 은정관리과장)은 팔리스트인 며느리(申智淑·88년 高大卒·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를 위해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모이는 날에는 음악공부를 철저히 한 후 외출을 하는 등 외조를 잘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교장으로 멋진 정년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지로 인해 내조자로서 더 큰 역할을 해줘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줄 좌로부터 두 번째 李禧朱·申智淑·高炳佑동문, 뒷줄 좌로부터 네 번째 高承範, 두 명 건너 李相玖동문.

高炳佑동문 가족의 특징 중 하나는 부자기간인 高炳佑·高承範동문과 자매기간인 부인 李禧朱·처형 李英朱(60년 家政大卒·前사당중 교사)동문이 같은 대학과 학과, 그리고 직업을 가졌다는 것이다.

반대로 첫째 사위 李相玖(82년 自然大卒·美AT&T 부속연구소 기술자)동문을 비롯해 여동생 高福仙(58년 看護大卒)동문, 장예인을 위한 무료치과진료단체인 스마일 복지재단 상임이사로 활약하고 있는 처남 李巨浩(65년 醫大卒·경희대 치대 교수)동문, 사파과를 졸업한 동서 申芝鉉(57년 文理大卒·경인교대 명예교수)동문, 조카 李向源(91년 社會大卒·기획예산처 관리총괄과·서기관)동문과 질부 許鳳慶(93년 美大卒)동문 중 같은 단과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高承範동문이 부친의 뒤를 이어 공직자의 길을 걷는 데는 이러한 다양한 직업과 전공을 가진 동문 가족들의 역할이 컸다고 말한다.

『장남이 문과나, 이과나 고만하면 고

학도록 했습니다. 그 다들 몰랐더니 경제학과를 가겠다고 하더군요. 대학 2학년 때는 진로 문제로 저와 밤새 이런저런 직업얘기를 하고는 다음날 공직자가 되겠다고 선언해 제가 가문의 영광이라며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高炳佑동문의 학창시절 역시 그의 이력처럼 다양하다. 6·25전쟁 중 북한으로 폭삭 내려앉은 상태 도서실을 새로 꾸리고 서울대 대학신문 1기 기자로 학교에 대한 남카로운 비판을 하기도 했으며, 경제학회장·학도군단장 등을 맡으며 바쁜 대학시절을 보냈다.

『제 평생의 보람은 동림부 시절, 우리나라의 농촌을 살리고 국민경제가 부흥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농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겨울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한 것, 키가 작은 일본 감나무를 어렵게 수입해 제주도에 심어 그 지역의 특산물으로 만든 것, 1백% 수입해야했던 견 우유와 분유를 국내에서도 생산하도록 낙농단지를 조성한 것,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양송이를 재배한 일 등 모두 제 손을 거쳐간 작품들이죠.』

이토록 바쁜 생활로 인해 그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한끼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주말에는 어김없이 가족들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녔다.

『한번 여행을 갔다 하면 아이들과 못 다한 이야기들을 하느라 제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아내와는 부부 동반으로 해외로 가는 모임이 많았기 때문에 함께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특히 아내가 친구들과 20여 일 동안 해외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다며 저에게 보낸 편지들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어요.』

끝으로 高동문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찾아주고 길을 안내하는 것이 부모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저의 모습을 자녀들이 지켜보면서 그들 역시 다양한 사고와 직업관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 하나만 믿고 너무 앞서가지 말고 균형을 맞추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 우리 가족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表)

高炳佑회장의 서울대 가족

부인	李禧朱(60년 家政大卒)
장남	高承範(85년 社會大卒)
며느리	申智淑(88년 音大卒)
사위	李相玖(82년 自然大卒)
여동생	高福仙(58년 看護大卒)
처형	李英朱(60년 家政大卒)
처남	李巨浩(65년 醫大卒)
동서	申芝鉉(57년 文理大卒)
조카	李向源(91년 社會大卒)
질부	許鳳慶(93년 美大卒)

교 2학년 때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전철들까지 모두 둘러놓고 아들 앞에서 각자의 전공과 직업관을 신바람 나게 피력

“평준화 교육 반드시 재고돼야”

鄭총장 ‘일간 조선’ 인터뷰서 밝혀

모교 鄭熙熊총장(사진)은 지난 6월 9일 모교 관악캠퍼스 대학본부 총합실에서 「일간 조선」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서울대 폐지」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鄭총장은 「서울대 폐지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길」이라고 말하며 「여론

조사를 보면 서울대 폐지 반대가 65%, 찬성이 35% 정도로 나왔는데 어떤 현안에 대해 반대가 70% 정도라면 반대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대 폐지를 밀어붙인다면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의 현재 수준에 관해



서 鄭총장은 「SCI(Science Citation Index : 과학기술 논문 인용색인) 순위로는 현재 35위인데, 우리보다 앞서 있는 대학은 대부분 미국 대학이고 미국 이외의 대학으로는 영국의 옥스퍼드·케임브리지, 일본의

동경대 등 3개 대학과 캐나다의 토론토대, 브라운대 정도로 연구의 양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鄭총장은 국립대 평준화안에 대해 「한국 사회가 질적 도약을 하기 위해서 평준화 교육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은 한국이 질적 성장을 해야 할 단계이고 창의적 인재가 필요한 시점인데 학생들의 차이를 표출시키지 않고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평준화 교육이 계속되면 창의적인 인재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홈페이지 인기도 1위 방문자 점유율 5.4%

모교 홈페이지가 지난 6월 4일 웹사이트 순위분석 전문업체인 「랭키닷컴(www.rankie.com)」이 「대학 인터넷 사이트 시간당 방문자 수」를 분석한 결과 점유율 5.38로 1위를 차지했다.

연세대(5.04%), 한국방송통신대(5.03%)가 2, 3위로 뒤를 이었으며 4위는 한양대(3.44%), 5위 고려대(3.08%), 6위 포항공대(2.50%), 7위 한국과학기술원(2.26%), 8위 영남대(2.17%), 9위 경희대(2.05%), 10위 부산대(2.04%)로 나타났다.

해외대학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는 미국 텍사스대가 9.2%로 가장 높은 방문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으며 콜롬비아대(8.29%), MIT(6.14%)가 뒤를 잇는 등 상위 20위권에 든 대학이 모두 미국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교 분당병원

새 원장에 姜楠植교수



지난 7월 5일 모교 분당병원 제2대 원장에 의과대학 방사선과학교실 姜楠植교수(사진)가 취임했다.

姜원장은 1977년 모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방사선학과 석·박사학위를 마쳤으며 1985년 6월 모교 교수로 부임, 대한FACS학회 재무이사, 한국 의학교육학회 국제부장, 근골격계 방사선연구회장, 모교 분당병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李)

모교 소식

국내 최초 대학 후연구관 개관

현대차그룹, 총 1백35억원 투입



지난 6월 18일 모교 관악캠퍼스에서 모교 鄭熙熊부총장, 산업자원부 李熙範(71년 工大卒) 장관, 현대자동차 鄭夢九회장 등 관계자 1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기아차세대 자동차 연구관(314동) 개관식이 열렸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01년 가공식을 가진 데 이어 2년7개월의 건설기간을 거쳐 준공, 모교에 기증했다.

총 1백35억원을 투입한 이 연구관은 연건평 2천2백평,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무형실(소음진동실형실), 하이브리드셀, 연료전지 실험실 등 최첨단 실험실과 차량 설계 및 조립 실습실 등을 갖추고 있다.

鄭夢九회장은 기념사에서 「이번에 개관한 연구관을 통해 이 공대 인력을 매년 1백80명씩 선발해 연간 40억원씩 지원할 것이며,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도록 해 전일 현대·기아차에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李熙範장관은 축사에서 「이 연구관 개관은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며 「세계적

수준의 차세대 기술개발로 자동차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鄭熙熊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21세기 기계공업의 핵심이며 우리에게 필수적인 공간이 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이 우리 대학에 설립된다는 사실은 매우 시의적절한 산학협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현대·기아차는 이 연구관을 통해 미래형 자동차 원천기술 분야의 교수진과 연구진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등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외 다른 우수대학과의 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글로벌 우수 인재육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산학협력 계열사 (주)엔지비(NGVTEK)를 통해 모교 이공계 재학생들에게 산학 기술협력 및 연구지원에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엔지비는 현대·기아차가 지난 2000년 차세대 자동차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 기초기술 연구, 협력업체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모교내에 설립한 계열회사다.

법과대학

신임 成樂寅학장 선임



지난 6월 3일 법과대학 신임 학장에 법학부 成樂寅교수(사진)가 선임됐다.

成학장은 1973년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2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헌법학자로 영남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다 1999년 모교에 부임, 한국공법학회 간사,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모교 교무담당 부학장 겸 법학부장, 한국헌법학회·한국공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成학장은 최근 대학신문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란 다원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서울대 폐지 주장처럼 일원주의적 사고로 교육에 접근하면 다원적 사회에 적합한 인물을 배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모교 산학협력단」 출범

수시사업 본격 전개 창구 마련



좌로부터 모교 朴龍根연구처장, 吳然天행정대학원장, 鄭慶燾총장, 鄭明熙부총장, 白忠敏대학원장, 교육인적자원부 鄭慶秀인적자원개발국장

모교는 지난 5월 27일 관악캠퍼스 대학본부 5층에서 대학과 산업계, 연구기관과의 산·학·연 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출범식 및 헌관식을 가졌다.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사업 관련 회계관리, 「학교기업」 설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지난해 1월 설립된 산학협력재단을 2006년까지 통합하고 연구처에서 분리된다. 또 그동안 산학협력재단이 담당해왔던 지적재산권 관리, 산학협력 계약 체결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산학협력단 설립으로 교수들은 개인 명의로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등)을 취

득하기 힘들게 되고, 대학에서 대부분의 지적재산권을 관리하게 된다. 모교는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산학협력재단을 설립해 지적재산권을 관리해 왔으며 기존에 교수들이 개인 명의로 출원했던 특허들을 산학협력재단으로 이전하고 있다.

모교는 산업자원부가 2001년 12월 기술이전촉진법과 특허법을 개정해 지적재산권을 대학이 직접 관리하게 하자 2003년 1월 산학협력재단을 설치했다. 이후 교육인적자원부가 2003년 「산학협력촉진유형특별법」을 개정해 자체 회계기능을 포함한 산학협력단을 대학내에 설치할 수 있게 하자 더욱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산학협력단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단장을 맡게 된 朴龍根(73년工大卒·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연구처장은 「산학협력단의 학교기업 시행이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지적재산 통합체제 구축

산학간 기술유통·이전 활성화

모교는 최근 전국 대학의 연구개발(R&D) 성과와 특허권을 종합 관리하는 「지적재산권 관리 및 기술이전 통합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 업체와도 협력, 맞춤형 기술개발 시스템을 마련해 대학이 보유한 특허권을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모교는 우선 올해 중 지방의 주요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보유품 기술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전국 대학과 전 문대까지 포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교는 지난 5월 31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관에서 2백10개 대학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산권 관리와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으며, 공대와 수의대, 자연대 등 7명의 교수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실무·전문위원 교수 24명, 단과대별 기술평가위원회 교수 50명을 조직했다.

산학협력재단의 洪義善(80년工大卒·재료공학부 교수) 단장은 「외환위기 이후 대학

의 특허기술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이들 기업과 연결하고 기술이전 수익을 배분하는 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전국의 대학들이 연합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학보유 특허기술은 기업체에 의해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리 분류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공급자인 대학과 수요자인 기업간 기술유통의 흐름을 가로막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모교는 각 대학이 갖고 있거나 교수진이 개발한 기술을 한 곳에 모아 통일된 기술유통과 표준화된 방법으로 분류하여 기술수요자인 기업체로부터 접근성을 향상시켜 산학간 기술유통의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교수들의 보유기술 정보를 기업체에 홍보함으로써 기술공급자와 수요자인 양방향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이를 통해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연계, 기술자문, know-how의 개발, 특허의 사업화 등 다양한 산학협력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범대학

관악구내 교육환경 개선키로

사범대학(학장 尹正一)과 관악구청(구청장 金熙勳)은 지난 6월 11일 관악구청 강당에서 尹正一(66년 師大卒)학장, 金熙勳(77년 世大卒)구청장, 관내 학교장 및 학부모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

육발전 지원협회를 발족했다. 협회회는 앞으로 모교 후원이 있는 낙성대 부근에 대학 문화 거리를 조성하고 성북구 중앙동에 있는 모교 사대 부설 중·고교를 이전했으며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세우는 사업 등을

발의 계획이다.

또 관악구 조·중·고생의 하려 환경을 위해 이천 여를 방학부터 열여, 수학, 과학 기초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고, 여학연구 과정을 열기로 했다.

이 밖에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조·중·고교 교육과정 컨설팅, 도서관·공예장·체육시설 개발, 교수진 및 재학생의 학습지도 봉사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치과병원 독립법인화

초대 원장에 張英·교수



지난해 5월 국립대학병원 경영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모교 치과병원은 지난 6월 1일 모교 병원에서 분리,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개원해 초대 원장에 張英(70년 齒大卒)교수(사진)를 임명했다.

張원장은 국립치과병원 독립법인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주역으로, 치과병원 설립을 비본부장을 맡아 치과병원 본원 과정에서 요구되는 많은 실무를 담당했으며, 유연한 사고방식과 추진력으로 치과병원의 독립법인 출범을 순조롭게 이끌어 왔다는 평을 받았다.

모교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張원장은 모교 치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학치과교과위원장, 전국 치과대학교육협의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

모교 병원

조선의학협회와 의료 협약

모교 병원(원장 成相哲)은 최근 방북 대표단을 파견해 조선의학협회와 상호 의료기술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林東烈(병원행정처장)단장, 金石華(78년 醫大卒·성형외과 교수)홍보실장, 金熙重(80년 醫大卒)정형외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방북대표단은 조선의학협회 산하 병원에 의료기기 및 관련 기술 지원, 의사와 의료 기술 지원, 의료진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해 최대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모교 병원은 지난 3년 동안 한민족복지재단과 협력해 20여 차례 의료진과 기술진을 북한에 파견, CT(컴퓨터단층



조선의학협회 김경애 부회장(左)과 林東烈단장이 협약을 맺고 있다.

촬영기), 심혈관조영기, 부시촬영기, 초음파기기를 지원하는 등 북한의 보건의료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평양어린이병원 지원

모교 어린이병원(원장 崔滉)이 자원한 평양어게동무 어린이병원이 2년여의 공사 끝에 지난 6월 17일 개원했다.

사단법인 남북어린이어게동무(이사장 崔滉·68년 文體大卒)가 북한 어린이 설사·구강

치료, 영양 부족으로 인한 질병들의 증상 및 원인 규명, 공유 생산을 위해 건립한 어린이병원은 연면적 1천3백평에 외래 진료실, 30개의 병상, 연구 실험실, 놀이방, 공유어게동무 등이 들어서 있으며 모교 병원은 그동안 개원을 위해 의료진 교육과 의료기기 및 관련 기술 등을 지원해왔다.

공과대학

「자랑스러운 동문상」 시상

공과대학(학장 韓民九)과 공과대학동문회(회장 南正敦)는 지난 6월 8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삼안코퍼레이션 金炯珠(50년卒)회장, 유종실업 趙炳祐(64년卒·문화부

회장)회장, 한국과학기술원 李海勳(66년卒)교수, 메타이코엔지니어링 鄭載勳(68년卒)사장 등 4명에게 2004 「자랑스러운 공대동문상」을 수여했다.

공과대학은 수상 경유를 통해 金회장은 우리 나라 건설 설계 기술 분야, 趙회장은 첨단유기기술 산업화, 鄭교수는 자동차 및 정보통신 분야, 鄭사장은 화석탄사



좌로부터 南正敦·李海勳·韓民九·金炯珠·趙炳祐동문

의 핵심부품 개발에 각각 기여한 공로로 수여했다고 밝혔다. (亨)

▲**韓文熙**(57년) 師大卒·프로테오엔 대표 = 지난 6월 24일 화장품 회사인 로레알 코리아와 여성생명과학기술협력이 공동제정한 제3회 한국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기술진흥상 공로상을 받음.

▲**李仁浩**(55년) 文理大入·영지대 석좌교수 = 지난 5월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여성지도자 회의 (GSW)가 수여하는 제1회 한국여성지도자상을 받음.

▲**高永根**(61년) 文理大卒·모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 지난 6월 9일 서울 동송동 일석기념관에서 一石 李熙昇 선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2회 일석 국어학상을 받음.

▲**朴 昇**(61년) 商大卒·한국은행 총재 = 지난 6월 4일 미국 뉴욕주립대 동문회가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한국인 졸업생으로는 최초로 받음.

▲**袁正運**(63년) 商大卒·한국철강신문 사장 = 지난 6월 9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스탈클럽에서 열린 제5회 철의 날 기념식에서 석탑 산업훈장을 받음.

▲**羅鼎善**(71년) 藥大卒·울산대 교수 = 지난 6월 24일 화장품 회사인 로레알 코리아와 여성생명과학기술협력이 공동제정한 제3회 한국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기술진흥상을 받음.

▲**文信容**(74년) 醫大卒·모교 산부인과학교실 교수 = 지난 6월 18일 청와대에서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 줄기세포 추출에 성공한 공로로 과학기술훈장장학신장을 받음.

▲**黃禹錫**(77년) 醫大卒·모교 수의학과 교수 = 지난 6월 18일 청와대에서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 줄기세포 추출에 성공한 공로로 과학기술훈장장학신장을 받음. 또 7월 13일 서울 중구 매점미디어센터 대강당에서 정진기연문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22회 정진기연문문화상 (과학기술연구부문) 대상을 받음.

▲**金潤榮**(81년) 工大卒·모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 지난 6월 11일 서울 여의도동 MBC 방송센터에서 장편동화 「우면산의 비밀」로 제12회 MBC 창작화대상을 받음.

▲**張世達**(84년) 社會大卒·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지난 7월 13일 서울 중구 매점미디어센터 대강당에서 정진기연문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22회 정진기연문문화상 (경제경영도서부문) 대상을 받음.



李海瓚 국무총리



鄭東泳 통일부 장관



金鏡泰 복지부 장관

국무총리에 李海瓚등문 통일 鄭東泳·복지 金鏡泰등문

지난 6월 29일 李海瓚(85년, 社會大卒)등문이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제36대 국무총리에 임명됐다. 신임 李총리는 84년 정치에

입문해 여당 정책위의장에 3번 기용된 재야 출신 5선 의원으로 민청련 상임부의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교육부 장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을 역임했으며 金鍾泌 前지린 총재에 이어 역대 총리 가운데 최연소 총리가 됐다.

한편 지난 6월 30일 부분 개각을 통해 통일부 장관에 鄭東泳(79년, 人文大卒)前열린우리당 의장, 보건복지부 장관에 金鏡泰(72년, 商大卒)국회의원이 기용됐다.

(表)

▲**李柄千**(87년) 醫大卒·모교 수의학과 교수 = 지난 6월 18일 청와대에서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 줄기세포 추출에 기여한 공로로 과학기술훈장 도약장을 받음.

▲**張明宇**(89년) 齒大卒·美네브래스카주립대 교수 = 최근 미국 최고 권위 단체 중 하나인 Omicron Kappa Upsilon (OKU)이 수여하는 「Four-Year Teaching Award」를 받음. 이 상은 치대 졸업생들이 4년동안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교수 한 명을 선정, 수여하는 것.

이동·선임

▲**朴晨容**(50년) 文理大入·글로벌 아시아나그룹 명예회장·본회 부

회장은 지난 6월 3일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한·일 우정의 해 2005」자문위원회의장에 위촉됨.

▲**鄭宗源**(58년) 法大卒·충청대학교장·본회 부회장은 지난 6월 23일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임사총회에서 제10대 회장에 추대됨. ▲**李金錫**(59년) 藥大卒·일동제약 회장·약대동창회장·본회 부회장은 지난 6월 21일 한·뉴질랜드 경제협약의 한국측 위원장에 선임됨.

▲**曹慶鎭**(60년) 醫大卒·70년 保大院卒·수산해양포럼 공동대표 = 지난 6월 15일 임기 2년의 한국소비자연맹 부산지방의료분장조정위원회 상임대표에 선출됨.

▲**朴煥太**(61년) 法大卒·국회의원 = 지난 6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기 2년의 부의장에 선출됨.

▲**徐泰植**(63년) 商大卒·삼일회계법인 명예회장은 지난 6월 9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제37대 회장에 선출됨.

▲**朴源烈**(66년) 法大卒·대검 형사부장 = 지난 6월 1일 서울서부지검장에 임명됨.

▲**韓煥睦**(68년) 農大卒·72년 法大卒·한국전력공사 사장 = 최근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제20대 회장에 선임됨.

▲**鄭鎭圭**(69년) 法大卒·서울고검장 = 지난 6월 1일 법무연수원장에 임명됨.

▲**金元基**(68년) 新大院入·국회의원 = 지난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17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됨.

▲**柳聖秀**(70년) 工大卒·대검 검찰부장)=지난 6월 1일 대전지검장에 임명됨.

▲**李靑熙**(70년) 文理大卒·MBC 사장)=지난 6월 1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방송협회 총회에서 제11대 회장에 선출됨.

▲**金學元**(70년) 法大卒·국회의원)=지난 6월 8일 자유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 대표에 선출됨.



▲**高善泰**(70년) 法大卒·광주지검장)=지난 6월 1일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됨.

▲**高永宙**(71년) 工大卒·청주지검장)=지난 6월 1일 대전지검장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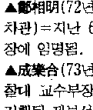
▲**蔡秀哲**(71년) 法大卒·제주지검장)=지난 6월 1일 서울북부지검장에 임명됨.



▲**金在珉**(72년) 法大卒·부산지검장)=지난 6월 1일 수원지검장에 임명됨.



▲**鄭相明**(72년) 法大卒·법무부장관)=지난 6월 1일 대구고검장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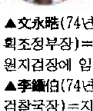


▲**成業合**(73년) 文理大卒·前경참대 교수부장)=지난 6월 5일 거행된 제10년대재정 선거에서 서울 중구청장에 당선됨.

▲**金相福**(73년) 法大卒·대전고검장)=지난 6월 1일 법무부 차관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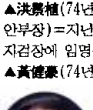


▲**李忠吉**(73년) 行大院卒·前국가보훈처장)=지난 6월 10일 충북 극동정보대 학장에 취임함.



▲**文永略**(74년) 法大卒·대검 기획조정부장)=지난 6월 1일 장원지검장에 임명됨.

▲**李鍾伯**(74년) 法大卒·법무부검정국장)=지난 6월 1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됨.



▲**李承寬**(74년) 法大卒·광원지검장)=지난 6월 1일 부산지검장에 임명됨.



▲**洪景植**(74년) 法大卒·대검 공안부장)=지난 6월 1일 의정부지검장에 임명됨.



▲**黃健泰**(74년) 商大卒·한국증권업협회장)=지난 6월 17일 사단법인 한국증권분석사회 회장에 선임됨.

▲**朴英洙**(75년) 文理大卒·부산지검 동부지검장)=지난 6월 1일 서울고검 차장에 임명됨.

▲**李振培**(75년) 法大卒·법무부법무실장)=지난 6월 1일 광주지검장에 임명됨.

▲**林采珍**(75년) 法大卒·춘천지검장)=지난 6월 1일 법무부검찰국장에 임명됨.



▲**權在珍**(76년) 法大卒·서울남부지검장)=지난 6월 1일 울산지검장에 임명됨.

▲**朴相吉**(76년) 法大卒·법무부기획관리실장)=지난 6월 1일 대검 중수부장에 임명됨.



▲**鄭道彦**(76년) 醫大卒·모교 정신과학교실 교수)=지난 6월 25일 서울대의대 소아임상강의실에서 개최된 한국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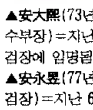
신체의학회 정기총회에서 제7대 회장에 취임함.

▲**金昌洙**(77년) 社會大卒·前조선일보 노조위원장)=지난 6월 5일 거행된 제10년대재정 선거에서 대전 대덕구청장에 당선됨.

▲**姜忠植**(77년) 法大卒·전주지검장)=지난 6월 1일 대검 공안부장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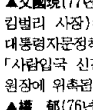


▲**明東星**(77년) 法大卒·서울북부지검장)=지난 6월 1일 제주지검장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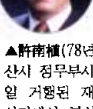
▲**安大熙**(73년) 法大·대검 중수부장)=지난 6월 1일 부산고검장에 임명됨.

▲**安永昱**(77년) 法大卒·울산지검장)=지난 6월 1일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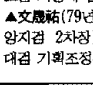
▲**林來玄**(77년) 法大卒·대구고검장)=지난 6월 1일 광주고검장에 임명됨.

▲**文顯現**(77년) 經大院卒·유한김벌리 사장)=지난 5월 27일 대통령직무정비기획위원회 산하 「사람인국 신경평려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됨.



▲**權 郁**(76년) 行大院·前민방위재단 총재 본부장)=지난 6월 5일 6월 5일 발족한 소남방재청 초대 청장(차관급)에 임명됨.

▲**許南植**(78년) 行大院卒·前부산시 정무부시장)=지난 6월 5일 거행된 제10년대재정 선거에서 부산광역시장에 당선됨.



▲**金敏圭**(79년) 法大卒·수원지검 1차장)=지난 6월 1일 광주고검 차장에 임명됨.



▲**文應祐**(79년) 法大卒·서울중앙지검 2차장)=지난 6월 1일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임명됨.

▲**金台鎭**(85년) 農大卒·前기창군수)=지난 6월 5일 거행된 제10년대재정 선거에서 경남도지사에 당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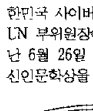
▲**趙英鎭**(29기 AMP·대한항공회장)=지난 6월 3일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인사총회에서 제11대 회장에 선임됨.

▲**徐仙鎭**(4기) SGS·한국사회복지개발원장·중국 연변대 객원교수·서울도시철도공사 모란역장·시인)=최근 전국시민



단체연합 정책위원회, 제2대 대한민국 사비비국회 복지위원장·LN 부위원장 등에 선임됨. 또 지난 6월 26일 제6회 태두산문화

신인문학상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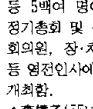


▲**林光洙**(52년) 工大卒·임광도건 회장·충북협 회장·본회 회장)=지난 6월 19일 서울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충청북



도 각 기관 단체장과 협회 회원들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충북출신 17대 국회의원, 장·차관, 대학교 총장 등 영전인사에 대한 축하행사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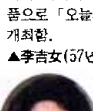
▲**李儒子**(55년) 美大卒·우려문화원 원장·미대동창회장)=지난 6월 25일 부터 7월 6일까지 서울 잠원동 갤러리우에서 국내외 조카가 15명의 작품으로 「오늘의 유라지움」을 개최함.



▲**李吉女**(57년) 韓大卒·경원대총장·가전 김재단 회장·가전학회 이사장·의대동창회장·본회 부회장)=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베트남 어린이 7명을 국내로 초청해 무료 심리정수술을 시행했으며, 5월 7일 가전회 강학캠퍼스에서 개교 6주년 기념식을 개최함.



▲**俞秉德**(60년) 農大卒·한국단미시트협회장·수원지부동창회장)=오는 7월 16일 서울 서초동 센트로호텔에서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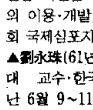


환경 확산을 생산을 위한 사표의 이용·개발」이란 주제로 제5회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한다.

▲**鄭永珠**(61년) 政大卒·경희대교수·한국기독교학회장)=지난 6월 9~11일 모교 회관인 제스호텔에서 「국제전



국학술대회」를 개최함.



▲**李相禹**(61년) 法大卒·한림대총장·한일문화교류기금 이사장·본회 부회장)=지난 6월 11일 서울 여의도동 전경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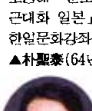


회관에서 세종대 차츰교수들을 초청해 「문호 나쓰메 소세키와 근대적 일본」을 주제로 제6차 한일문화교류회를 개최함.

▲**朴聖泰**(64년) 醫大卒·서울의원장·한국의약사평론가회장)=지난 6월 16일 서울클럽에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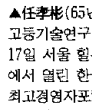
梁東安(68년 文理大卒)교수를 초청해 「홍선, 보신후의 우리 나라 정국의 방향」에 대한 특별강연회를 개최함.



▲**沈大平**(66년) 農大卒·충남도지사)=지난 6월 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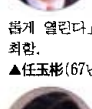
전체 에세이집 「길은 합심 새 함께 열린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함.



▲**任玉彬**(67년) 音大卒·중앙대교수·피아니스트)=지난 8월 23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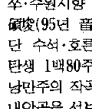
吳光浩(74년 音大卒·한국에솔송향악교수·클라리넷)·崔



宗丞(78년 音大卒·한세대교수·수원시향 수석·오보에)·李



銀煥(95년 音大卒·KBS 교향악단 수석·호른)등과 함께 탄생 1백80주년을 맞는 독일의 낭만주의 작곡가 라이베케의 실내악곡을 선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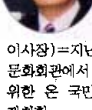
▲**尹雅任**(64년) 美大·마이크로제임스 Art Director)=지난 6월 5~18일 서울 명창동 그로리자빌에서 「신비



로운 정물과 고요로운 풍경」을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함.



▲**林吉鎭**(69년) 工大卒·미시간주립대 석좌교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한국개발연구



원 석좌교수·주거복지연대이사장)=지난 6월 2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새 국민안방」 행사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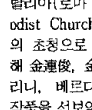
▲**鄭雲煥**(70년) 商大卒·모교총장)=지난 6월 24~26일 칠레산티아고에서 열린 제8차 아·태지역대학



연 협회(APRU) 총장회의에 참석해 칠레대학교 학술교류 문제를 논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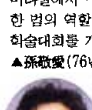
▲**鄭愛蓮**(73년) 音大卒·전남대교수·소프라노)=지난 6월 19일 영국(런던 Christ Church Centre), 27일 이



탈리아(로마 Protestant Methodist Church)에서 문화교류부의 초청으로 열린 독창회를 통해



金連俊, 金聖泰, 玄濟明, 벨리니, 베르디, 모차르트 등의 작품을 선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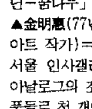
▲**李永泰**(74년) 行大院卒·대구미대대학교수·한국법학회



회장)=지난 6월 18일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 분투관세



미나심에서 「살의 질 향상을 위한 법의 역할」이란 주제로 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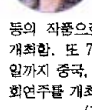
학술대회를 개최함.



▲**孫敬煥**(76년) 侯大院卒·성도의원장·서양화가)=지난 6월 16~22일 서울 인사동 조형갤러리에서 정물



과 작품으로 새



번개 개인전을 개최함.



▲**朴昭暎**(77년) 美大卒·한국화이스트드 학회이사)=지난 6월 22~27일 서울 삼성동 COEX 인도아홀에서 열린



2004년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에 「이웃, 혹은 이웃아

나-꿈나무」 작품을 출품함.

▲**金明惠**(77년) 韓大卒·디지털아트 작가)=지난 6월 9~15일 서울 인사갤러리에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화가 돋보이는 작품들로 첫 개인전을 개최함.

▲**金宣希**(80년) 音大卒·마이크로제임스 Art Director)=



지난 6월 26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헌말, 모차르트, 생상스, 미네리니 등의 작

품으로 마이클린 독주회를 개최함.

▲**申惠晶**(86년) 音大卒·경원대교수·영원대교수)=오는 7월 3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클



콘서트 라디오, 메토렌, 리스트, 코플랜드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독주회를

개최함. 또 7월 9일부터 8월 2

일까지 중국, 홍콩 등지에서 순

회연주를 개최한다.

(정리=安興美기자)

동문기고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서울대 폐지론인가

국가적 지원·육성책 절실한 때다

세계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기회로

최근 서울대 총장이 「서울대 폐지」에 대한 부담감을 지적하며 서울대 사수를 다짐하고 나서고, 서울대총동문회의 여러 동문들이 걱정과 함께 그 어려서움을 통박하고 나서는 것을 보고 그것이 그저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상당히 근거 있고 참으로 합당한 생각이 드는 동시에 「이거 큰일났구나」하는 심정을 저버릴 수가 없다.

「서울대를 없애야 한다」는 말속에는 서울대에 들어가고 하다가 못 들어간 사람들의 한이 서려 있고, 사회에 나와서는 서울대 출신들에게 놀려 사회 진출, 즉 속된 말로 입신출세에 지장이 있어 원망스럽다는 등 일종의 열등감과 이 절박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교육계의 여러 가지 폐단과 부작용은 일종의 생존 경쟁의 부산물일 뿐, 결코 서울대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외와 사교육비의 과다 지출, 과외로 인한 공교육의 비정상화 내지는 정시 종조 등의 권위적인 원인은 바로 생존경쟁이라는 자연적 원리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사람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남보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사회적 진출도 용이하고 입신출세도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지름길은 그런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 한다. 그런 실력은 어떻게

대학교육을 지향하든 다른 나라들은 생존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실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지향할 것이다.

경쟁을 기피하고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낙오되고 멸망하게 마련이다. 인간존엄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나면서부터 경쟁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인간이나 생명체가 생존과 발전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연의 섭리나 원리를 절대로 거역해서는 안 된다. 또한 거역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생존을 위한 최선의 길은 그러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해서 최선 최강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길뿐이다.

그런데 자질이 부족하든지, 노력이 모자라든지 간에 낙오되는 대다수로 하여금 승자의 대열에 합류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앞서는 자를 멈추게 한다든지,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는 원래 평등이나 평준이란 결코 없다. 본래부터 대

소나 강약, 고저나 장단 등의 우열이 있게 마련이다. 그것이 자연계와 사회의 다양성과 조화를 이루는 기본 요소인 것이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평준화하거나 평등하게 하려 할 때 그것은 반드시 「하향 평준화」와 「열등 평준화」의 결과를 낳아 종당에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마련이다.

대학교육은 원칙적

으로 엘리트 교육이다. 요즈음 다양하게 분기된 전문 기능인의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전문분야의 대학교육이 성행하기 때문에 모든 대학의 교육을 그러한 전문 직업교육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농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거론하고 있는 대학은 그러한 차원의 대학이 아니라 점차 우리 나라의 중추적 역군이 될 인재양성을 위한 엘리트 양성기관으로서의 대학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한 대학은 모름지기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지 않으면 점차 우리 나라의 앞날은 기암괴석 수 없다.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인재양성기관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러한 대학이 되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서울대를 없애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저지 앞에서 교양을 갖추게 하는 것과 같이 망국적인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와 같은 대학을 더 많이 만들어서 서로 경쟁적으로 발전을 추구하게 하고, 나아가 선진국의 우수한 명문대의 위치를 동양학에 있는 대학으로 키워 나가는 국가적 지원과 육성책이 더욱 절실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서울대 폐지 논란에 대해 국민적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 자본주의 경쟁사회에 세계적 수준의 변할 수 없는 원칙은 승자는 존경받고 패자는 승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인간사회는 발전해서 행복으로 가는 것이 불변의 원리다. 만약 이러한 원리를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하나의 조직이라도 역행해서 저지라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겠는가. 아마 서울대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회에서 패자이거나 열심히 일해도 승리하지 못하는, 능력보다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교육자들의 생각은 아닐까. 물론 일부는 발전을 위한 진정한 충고자도 있을 것이다.

학벌주의를 없애기 위해 서울대를 없앤다는 것은 정부의 잘못을 서울대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학벌주의의 본산은 정부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 정부와 산하단체 또는 국영기업들의 승진 인사기준 등에 정확한 평가기준이 부족하다. 기업에서 학벌주의가 있다는 말이 없는 것은 정답하고 투명한 평가기준에서 근거하기 때문이다. 시정해 학벌이 안 통하고, 기업에 학벌이 안 통하는데 정부의 고시주, 학벌주의, 선후배주의, 지역주의 등에 밀려 능력주의, 실적주의, 발전주의 등은 숨을 못 쉬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확한 평가기준과 투명한 절차가 먼저다.

평범하고 성실한 한 사람의 노동자는 10명 내외의 식구를 교육시키고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지만, 죽어 가는 사람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정말 훌륭한 식자는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위대한 과학자는 1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며, 훌륭한 경영자는 10만명의 실업자를 해결할 수 있다. 어느 쪽을 중시해야 하는가?

GM대우나 우리 나라의 큰 시종은꼴이 외국에 팔려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근본은 전문적인 위대한 경영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든 기업든 가장 무능한 학교와 기업이 도태되고, 철저하게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사회기반을 바로 세우야 한다.

폐지는 망하고 승자는 흥하는 사회건설의 기본을 일카이라도 늦추거나 역행하는 것은 폐망한 공산주의의 발상과 무엇이 다른가?

서울대도 다시 생각해보자. 한국의 일류기업은 세계 일류가 많다. 고등학생도 한국에서 일류면 세계 일류다. 서울대는 지금이나 고등학생보다 여건이 좋다. 그런데도 왜 한국의 일류 대학인 서울대는

세계 일류가 못되는가. 세계 일류려면 감히 누가 서울대를 앞세우고 하겠는가.

단지 여기에는 승자 즉, 지도자가 꼭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

첫째, 지도자는 겸손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더욱 많은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고 모범을 보여 존경받아야 한다.

사범시험 합격자 중 서울대가 많다고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서울대에 서울대출신 교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대부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서울대의 공정한 기준이 부족하고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고 보면, 승자만의 전치가 아닌 승자와 약자가 다함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배려심의 부족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필자는 초등학교만 시절에서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 모두 야간학교만 다닌 주정아들을 40년 이상 지냈기 때문에 노동자의 불만을 어느 정도 체험을 통해 생생히 알고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자신에

대한 실력 향상을 위해서 지금도 상해 복단대학에 2년째 공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30년간 시장 점유율 6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고 중국에서도 3년째 1등을 계속 유지하고, 2010년 세계 1등을 바라보는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바탕에는 그레도 서울대에서 부족한

지식을 배운 것이 큰

힘을 뒀을 거라 생각한다. 필자는 지금도 세계 1등을 위한 자신의 부족한 지식 때문에 가슴앓하고 있으며, 더욱 새로운 고도의 여러 가지 기술과 경영기법 배우기에 갈망하고 있는 때에 일류 학교를 없앤다는 논란은 참으로 참담하고 이 한없이 부족한 경영기법을 어디서 배워야 할지, 다른 나라에 더 좋은 학교가 있으나 언어 등의 장벽으로 애간장만 태우고 있다.

아무췌록 위기는 기회이며 전회위부의 새로운 출발점은 모든 기록권을 포기하고 약자를 배려한 승자,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실용이 선행되어야만 성공할 세계 일류 대학의 확실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교수님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정한 새로운 표준에서 새롭게 구성하고 정서시 사색해 낼 결심과 사기여야 한다. 지금도 서울대는 세계 상위권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한국의 일류보다는 지금은 세계 일류가 더욱 중요한 때가 아닌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한국의 기준이 아닌 세계의 기준에 모범적인가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해라 하며, 국민 30%가 서울대 폐지론에 찬성한다는 게교양에 가장 큰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삼아 전회위부의 희망을 가져본다.



朴 衡 圭

(57년 文理大學)

대한민국 헌정회 이사



朴 室 相

(97년 AUC·AUC동맹회장)

월드조인트 사장

동문 기고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서울대 폐지론인가

병은 치료 않고 환자만 죽이는 꼴

우리 사회의 오랜 병폐로 지적받은 학벌주의나 연고 지역주의 등은 분명 시정 여파돼야 할 일이지만, 서울대를 없애고 영호남을 통합 재분할하여 새로운 이들을 부여하자는 발상 등은 극히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보다 더 큰 문제점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 하겠다.

서울대 폐지론자의 주장을 보면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와 입시·자유의 원인을 동장 서울대의 존재에 떠넘기는 오류에서 출발, 갖가지 문제해결을 서울대 폐지로 찾자는 것이다.

우선 서울대를 학벌주의와 입시·자유·주변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 하겠다. 우리 사회의 오래된 관료·종교·직·사고와 산업사회 이전의 보수적 출세주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그 원인을 찾고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 모든 분야에 서울대가 기복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도 무리이다.

이미 이광계하인 KAIST, 포항공대가 우수하다고 보는 견해도 많으며 사립대 중에서도 모든 면에서 우수하여 높이 평가받는 학교가 있다. 우리 대학들 간에 서서히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집적·변화와 전문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고교 평준화가 하향 평준화로 끝마리들을 열고 있는 이때 대학까지 평준화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무책임의 도를 넘는 한심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부존자원이 없는 이 나라에 오로지 두 너로 국제경쟁에서 승부를 걸어야 될 지경에 서울대를 없애자니, 그것도 모든 면이 부족해서 없애자는 논리가 아니라 일류이기 때문에 없애자니, 서울대 없앤



金必洙

(81년 師大卒)

前노원동 교장

후 다시 일류가 된 학교를 없애고 계속 하향 평준화시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우리 사회는 세계화의 큰 흐름 속에서 고도산업자본주의에 적응해 가면서 사회 저변에 깔려있던 관료주의, 학벌주의 등에서 탈피, 모든 분야에서 능력·우선 전문

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간파해서서 한 뼘 더 나아가 여기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은 것이 현명한 일 아니겠는가. 세계 어느 사회든 일류는 있는 것이며 이것을 지향하는 것이 국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능력과 전문화에서 일류가 되도록 지원하고 육성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적 관점으로 볼 때 서울대는 일류가 아니다. 세계 대학 수준으로 평가할 때 누가 서울대를 일류로 주장할 수 있는가. 다만 일류가 될 수 있는 전통과 인재가 비교적 다수 모여있을 뿐이다. 오히려 세계 일류 대학과 견줄 수 있는 대학으로 지질 육성해야 할 시점에 서울대 폐지를 주장하나다.

병은 환자가 아니라 그 환자의 병을 치료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그 사람 자체를 죽여야 한단 발상기. 빈대들 자제 집을 태워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금지 되살아나도록 더 노력하길

모교에서 석·박사과정까지 마치느냐 다른 동문들보다 훨씬 학교를 오래 다녔다는 의무감과 한 집에 동문이 둘(둘)이면 서울대 동문이며 그 또한 모교에서 학위 과정을 다 마치느냐 아주 오래(?) 모교에 있었느냐 아니었느냐 동문회보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글을 쓰려 한다.

위낙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어서 10여년을 대학강사로, 모교의 연구원으로 생활을 했었을 때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서울대 출신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기업에 들어오니 꽤나 따갑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됐다.

자도 교수님의 소개로 내가 연구한 소바자학이라는 학문을 실제 기업 마케팅 활동에 적용해 보고자 기업에 입사를 해 보니 제일 먼저 반겨 주는 것이 모교 동창회였다. 일반 직원처럼 대학을 졸업

하지마자 공채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서 회사가 무척 낯설고 외로울 때 아는 척을 해주고 회사 돌아가는 사정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동문들이었다. 그러나 다른 대학의 동창회와는 달리 항상 회사에서 먼 곳에서 비밀리에 회동을 하는 것이었다. 서울대 출신이 모여 있는 모습을 다른 회사 사람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학교에서는 자랑거리라는 아닐지라도 그 래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었던 출신학교가 기업에서는 굳이 밝힐 필요도 없는 것으로 됐으며, 특히 새로운 인사채도로 기업문화가 바뀐다며 출신지, 출신학교 등을 배제한 능력 위주의 선발, 탈락 인사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마치 모교 출신자들이 능력은 없으면서 간만만 달고 있다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기



朴水京

(88년 家政大學卒)

태평양 마케팅부 부장

도 했다. 허나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서울대에 대한 동경, 뒤따라오는 높은 책임감, 기대감 등이 어우러져 나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모교에 다닐 때 다른 대학들에 비해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만큼 사회에 기여하고 우리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의무

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그런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요즘 일각에서 교육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대 폐지론을 들고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 우선은 동문들이 많이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 논의되고 있는 폐지론은 논리적 근거도 허박하고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나온 답이 아니기 때문에 재론거리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의 서울대출신에 대한 감정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그 옛날 우리의 첫선을 올렸던, 조국의 미래가 궁금하면 눈을 들어 관악을 보라는 말처럼 이런 금지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모교, 동문 모두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모교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단지 공부만을 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의 큰 일꾼이 되기 위해 서울대에 들어가게 됐다는 말이 들렸으면 정말 좋겠다.

모든 문제 서울대 폐지로 해결?

보장을 신청해온 한 중소기업을 신용 조사하고 오는 길에 원고청탁 전화를 받았다. 마치 다치마나 다케시의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모교와 비교해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차라리 졸업생으로서 요즘 사회개혁과 관련된 논의 중 뜨거운 쟁점인 「서울대 폐지론」에 대한 작은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자 묘한 우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대 폐지론은 소위 말하는 「1등 대학」 서울대라는 권력기관과 그 「졸업생」들이 대한민국 각 부분에서 핵심지위를 차지해 대한민국이 「서울대 공화국」이 됐으며 이들이 학연을 이용해 새로운 권력을 확대·재생산하여 정부 및 사회 각 분야에 「비서울대」출신들이 활약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폐쇄성을 보여왔기에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서울대라는 엘리트

권력집단과 국립대학들을 인위적으로 구조 조정하여 대학사회의 하층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회권력층 집권에 있어서 유연성을 높여주는 논의다.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이었던 일부 공감하면서라도 모교에 대한 지나친 반감이라 여러 기분이 좋지 않을텐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논의를 접할 때마다 「한국적 평등주의」라는 개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土農工商의 사회가 외세의 침략으로 무너지는 과정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는 한 것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일반민들에 대한 민중의 배신감과 李承晩政權, 군사정권을 거쳐오면서 쌓여온 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생긴 한국적 평등주의가 낳은 많은 논의 가운데 서울대 폐지론도 하나일 뿐이라

는 생각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 대학사회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



梁熙雄

(00년 自然大學卒)

신용보증기금 대리

윤대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한 학문·권력·독식이라는 문제점이 있음도 인정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권력상징성을 지닌 한 대학 및 그와 유사한 국립대학들을 「제자리 맞추기」라는 포장을 명분으로 인민재민식 대대교를 하는 모습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정말 우리가 개선해야 할 것은 소위 돈만 되는 학문을 무시하는 경향, 부조한 대학은 가야 인간 구실을 한다는 풍조, 취직을 위해 도서관을 찾을 수밖에 없는 무늬만 대학생들과 같은 일그러진 사회 속에 우리 대학들의 지화상이 아냐냐. 신선한 사회 새나기를 배출하고 거시적 사회 담론을 제시해야 할 대학을 만드는 데 국민적 합의의 모지 못하고 「우상의 파괴」를 통해 파급효과만 기대한다면 너무 험고 단순한. 그러나 근본적이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닐까.

졸업생으로서 서울대 폐지론이 모교의 어두운 면을 부각시키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나도 이런 논의가 나오게 하는데 한 뼘 한 것은 어닌가 하고 돌아보게 된다. 서울대 폐지론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감정적이고 이를 통해 대중이 원하는 근본적 사회개혁을 끌어내기에는 설이었다. 하지만 모교 신후배들에게 조금은 따뜻한 충고를 하는 논의는 분명한 만큼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건강을 지키는 법

폐경기 고혈압, 체중조절 선행돼야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점진적으로 감소되어 월경이 영구적으로 끊어지는 시기를 폐경기라고 한다. 이러한 시기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침묵의 살인자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폐경기 고혈압」이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은 흡연, 고지혈증, 당뇨병과 함께 죽상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4대 주범 중의 하나인데, 이 죽상동맥경화증에 의해 발생하는 뇌졸중(뇌경색증)과 관상동맥질환인 협심증, 심근경색증, 돌연사 등을 일으키는 위험성 심혈관질환에 의한 여성의 사망률이 폐경 이전에는 남성의 5분의 1에 불과하다가 폐경 이후에는 비슷해지고, 65세를 넘으면 남성보다 11%나 더 높아진다.

폐경기 이후 고혈압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데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절대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폐경기 고혈압의 특징은 혈압의 기복이 아주 심한 불안정 고혈압과 백의 고혈압이 자주 나타나 병원에서 혈압측정 시에만 혈압이 올라가는 등 스트레스와 감정변화에 민감하며, 골다공증이 급격히 진행된다.

우선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요법을 시작해 염분섭취를 줄이고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으며, 저녁식사를 될 수 있는 한 저녁 먹는 등 체중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 각종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되 달리기와 빨리걷기 등으로 골다공



高英博

(70년 醫大卒)

강서미즈메디병원

순환기내과 과장

증도 함께 예방해야 한다.

약물요법으로는 이뇨작용이 있는 항고혈압제가 가장 이상적이며, 노인 고혈압에 적합할 뿐 아니라 골다공증의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다음으로 ACE저해제(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가 있는데, 이것은 이뇨제 사용시 나타날 수 있는 저칼륨혈증과 현담이나 혈중 노산의 증가를 피할 수 있고, 보다 강력한 혈압강하를 기대할 수 있다.

폐경기 고혈압은 이를 조절해 주지 않으면 같은 연령의 남성에 비해 합병증의 빈도가 높아져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및 뇌졸중으로 사망에 이르거나 그 후유증으로 인해 삶의 질이 황폐해지기 쉽다. 따라서 전문의를 통해 이 질환을 조기발견하고 적극적인 치료대책을 세워 노년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야 하겠다.

(연락처 : 2007-1335)

가족 건강법

腸마사지로 각종 질환 예방해요

필자는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질환에 시달리며 고등학교 때는 거의 폐인이 될 정도였다.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건강 관리를 시작해 몇 년 전에는 대학생들과 같이 아마추어 형인 경기를 하여 2등을 할 정도로 체력이 좋아졌다. 내가 가장 오랫동안 시달린 것 중의 하나가 과민성 장이다.

유학 기간인 1983~1989년 사이에도 역시 조그만 스트레스에도 장이 예민하게 반응해 장 붓음을 느끼며 하루에 여러 번 화장실을 드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공(미생물학) 책을 읽던 중 사람의 장에는 약 1kg의 세균이 살고 있다고 세균의 활동은 장의 상태에 큰 영향을 준다는 몇 줄의 내용을 읽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미생물학과의 어떤 강의 시간에서도 사람의 장내 세균에 관한 소개가 없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 귀국하면 미국에서도 미개척 분야인 장내 세균에 관한 연구로 한국의 차별화된 연구 분야를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1989년 귀국 후 지금까지 속과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필자는 제자들과 함께 창립한 벤처(주)비피도를 통해 약 3년 전 장내 세균 중 가장 유익한 균인 비피더스를 건강식품 형태로 개발했다.

필자가 개발한 제품을 본인이 직접 먹기 시작해 약 10일 후부터 과민성 증상이 개선되어 현재도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다.

장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른 하나는 장 마사지이다. 현대의 바쁜 생활 속에서 각종 스트레스를 받으며 우리의 근육들이 굳게 된다. 어깨나 허리가 굳어질 때 마사지를 하면 호전되듯이, 장의 근육도 마사지를 해주면 풀리진다. 편안하게 누워서 손을 이용하여 장을 이것 저것 눌러 보면 아픈 곳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아픈 부위를 누르고 주물러 마사지를 해 주면 대부분의 장근육 통증이 사라진다.

필자는 건강한 장을 위한 생활 강의로 다양



池根 億

(79년 農大卒)

모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한 매체를 통해 장 건강법을 소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잘재된 식생활, 충분한 야채와 해조류 섭취, 지나친 육식 습관, 적절한 운동과 휴식, 긍정적인 생각 등 좋은 생활 방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위에 제시한 방법들은 요즈음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대장암, 과민성 대장, 열증성 장 질환 등 꾸준히 증가하는 장 관련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들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1백세 장수 사회를 편안한 잠을 갖고 맞이하는 방법들을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할 서울대 동창회보에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2004년도 회장단이 새롭게 출범합니다.

● 회 장 ●



김 정 국 (45기)
前 문화일보(주) 사장

● 명예회장 ●



손 경 식 (25기)
CJ(주) 회장

● 수석부회장 ●



박 영 준 (35기)
(주)코리아리서치센터 회장

● 부회장



양성욱 (18기)
한국라이프(주) 사장



심길보 (3기)
삼미(주) 부회장



이종원 (5기)
(주)이주 대표이사



김인규 (6기)
유형사(주) 대표이사



김성민 (17기)
최고법인 세경대학원 이사장



고시복 (8기)
대한의원종합병원(주)대표이사
전무이사



윤영석 (10기)
두산중공업(주) 부회장



황경로 (11기)
한국금속공업(주) 회장



이영숙 (13기)
한·텍시프화학회 회장



김승유 (19기)
하나은행(주) 은행장



임도수 (20기)
보성파워텍(주) 회장



김학관 (31기)
재경총무(주) 사장



변안식 (21기)
화양상용(주) 회장대우 상근고문



박찬범 (28기)
OIA(주)한양(주) 대표이사



정명수 (25기)
시·한국건설원 회장 이사장



도동환 (29기)
H원정중공업(주)대표이사
회장



박명관 (28기)
부정세총무(주) 이사장



이동준 (29기)
코리아프로그리지 회장



정수신 (29기)
한국프로그리지 회장



조양욱 (29기)
대한은행(주) 회장



서낙 (30기)
동성파워텍(주) 대표이사



이구태 (31기)
POSCO(주) 회장



피운계 (31기)
(주)이철 회장



조시연 (35기)
대우건설(주) 회장



이대범 (35기)
(주)이철 회장



심계진 (36기)
한미건설(주)대표이사
회장



신명무 (37기)
한미건설(주)대표이사
회장



이종현 (37기)
(주)이철 회장



김관석 (38기)
(주)이철 회장



박세환 (38기)
한국건설(주) 대표이사 / 교수



박은연 (40기)
한국건설(주) 대표이사



이봉순 (40기)
한국건설(주) 대표이사



변정수 (41기)
한국건설(주) 대표이사



한계범 (42기)
한국건설(주) 대표이사



신백율 (43기)
한국건설(주) 대표이사



조관남 (43기)
(주)이철 회장



이희우 (43기)
한국건설(주) 대표이사



김도연 (43기)
한국건설(주) 대표이사



이원도 (43기)
(주)이철 회장



김형진 (51기)
한국건설(주) 대표이사



박제갑 (51기)
한국건설(주) 대표이사



김재정 (52기)
한국건설(주) 대표이사



최계준 (52기)
(주)이철 회장



이범무 (52기)
(주)이철 회장



김현순 (53기)
(주)이철 회장



이재욱 (54기)
(주)이철 회장



신훈 (55기)
(주)이철 회장



박선호 (56기)
(주)이철 회장

● 감사



이병재 (18기)
한국건설(주) 사장



신상수 (45기)
한국건설(주) 대표이사

● 총간사장



정관현 (40기)
한국건설(주) 대표이사

● 집행간사



강희호 (30기)
(주)이철 회장



장석현 (44기)
(주)이철 회장



조은상 (45기)
(주)이철 회장



박선호 (56기)
(주)이철 회장

▲이건덕씨 ▲이규범씨 ▲이기선씨
 ▲이문씨 ▲이동복씨 ▲이영수씨
 ▲이상현씨 ▲이상선씨 ▲이거준씨
 ▲이진환씨 ▲이주환씨 ▲이만일씨
 ▲이현섭씨 ▲임유철씨 ▲임영우씨
 ▲임재현씨 ▲임종현씨 ▲임정원씨
 ▲장신환씨 ▲장영남씨 ▲정 현씨
 ▲정봉근씨 ▲정삼열씨 ▲정우환씨
 ▲정재복씨 ▲조상훈씨 ▲조상환씨
 ▲조신환씨 ▲조영환씨 ▲최희갑씨
 ▲최영환씨 ▲최갑환씨 ▲최희갑씨
 ▲한진환씨 ▲홍기두씨 ▲홍성수씨
 ▲황선진씨 ▲홍윤환씨
 ◆저런대 ▲김재식씨 ▲김현오씨
 ▲김해호씨 ▲공광선씨 ▲김홍윤씨
 ▲김우석씨 ▲김창남씨 ▲김진수씨
 ▲김재환씨 ▲김기환씨 ▲김도환씨
 ▲문우환씨 ▲박광순씨 ▲박영환씨
 ▲서운수씨 ▲서재영씨 ▲손병기씨
 ▲염상환씨 ▲염성환씨 ▲이효환씨
 ▲이신환씨 ▲이시환씨 ▲임정환씨
 ▲장병환씨 ▲장승환씨 ▲장영환씨
 ▲정 현씨 ▲정기영씨 ▲정종근씨
 ▲정성환씨 ▲정경호씨 ▲정종재씨
 ▲조광환씨 ▲조기환씨 ▲최희수씨
 ▲최진우씨 ▲한동욱씨 ▲홍광현씨
 ◆연호대 ▲조기환씨 ▲김기환씨
 ▲권오대씨 ▲권진환씨 ▲김기환씨
 ▲김재환씨 ▲박기환씨 ▲박영환씨
 ▲박재욱씨 ▲박철환씨 ▲박형지씨
 ▲심정환씨 ▲윤희환씨 ▲유영환씨
 ▲이영환씨 ▲이정환씨 ▲정종수씨
 ▲정기환씨 ▲정영환씨 ▲정우환씨
 ▲정재환씨 ▲조경환씨 ▲최희환씨
 ▲최기환씨 ▲한진환씨 ▲현환씨
 ◆점열대 ▲김우환씨 ▲김현환씨
 ▲고상환씨 ▲고희환씨 ▲박정환씨
 ▲국기환씨 ▲권영환씨 ▲김기환씨
 ▲김기환씨 ▲김기환씨 ▲김기환씨
 ▲김봉환씨 ▲김경환씨 ▲김영환씨
 ▲김우환씨 ▲김진환씨 ▲김진환씨
 ▲김희환씨 ▲모경환씨 ▲문경환씨
 ▲문경환씨 ▲박기환씨 ▲박영환씨
 ▲박우환씨 ▲박석환씨 ▲서정환씨
 ▲서정환씨 ▲송수환씨 ▲송수환씨
 ▲신상환씨 ▲안영환씨 ▲유영환씨
 ▲오영환씨 ▲오영환씨 ▲오영환씨
 ▲윤정환씨 ▲이경환씨 ▲이영환씨
 ▲이영환씨 ▲이영환씨 ▲정기환씨
 ▲정경환씨 ▲정경환씨 ▲정경환씨

[illegible]

△최 희은 △최수민⑦ △최희정
 △최성규⑦ △최순모⑦ △최용환
 △황이남②
 ◆ACAD △강경보⑦ △강영욱
 △김 규⑦ △김경순④ △김광진
 △김도영⑥ △김석도⑥ △김수중
 △김영길④ △김영준⑦ △김진성
 △김종현⑦ △김태환⑦ △김홍복
 △김동진⑦ △김민용⑥ △박상호
 △박성득⑦ △박재영⑥ △박재일
 △조인철⑦ △조병영⑦ △신영준
 △신우현⑦ △신환복⑦ △신승진
 △염정재⑦ △오성욱④ △정영진
 △유병환⑦ △윤두석⑦ △이정진
 △이병경⑦ △이성훈⑦ △이영태⑦
 △이종성⑦ △이진진⑦ △이희환
 △임동섭⑦ △장보근⑦ △최하익
 △신단석⑦ △신종식⑦ △정동욱
 △정승하⑦ △조병구⑦ △조옥석
 △채준서⑦ △최광주⑦ △최봉인⑦
 △최수근⑦ △최종문⑦ △하성환
 △황의철⑦ △황정진⑦
 ◆ABP △김호식⑦ △김호준
 △김영태⑦ △박인규⑦ △박재선
 △박갑석⑦ △박병호⑦ △송명래⑦
 △송영구⑦ △심현복⑦ △최대국
 △임대식⑦ △조병현⑦ △최소훈⑦
 △최성규⑦
 ◆SGS △김능기⑤ △김수근⑦
 △김종호④ △박진동⑦ △박수환⑦
 △박준현⑦ △오연복⑦ △이범순⑦
 △이득원⑥ △정성훈⑦ △정병호⑦
 △홍윤영⑦
 ◆CHON △박해국⑦ △현영문⑦
 ◆OPCN △최수현⑦ △최효호⑦
 ◆APC △강대기④ △강영준⑦
 △곽수진⑦ △김정돈④ △김사문⑦
 △김상규⑦ △김제성⑦ △김용진⑦
 △김환복⑦ △박광준⑦ △박석환⑦
 △손일환⑦ △손세광⑦ △이영세⑦
 △이우진④ △임하재⑦ △조근삼⑦
 △조성구⑦ △조성춘⑦ △최복순⑦
 △정성호⑦ △한길⑦ △함춘조⑦
 ◆IFM △권영원⑦ △권차남⑦
 △김 윤⑥ △김병준⑦ △김영민⑦
 △김일영⑦ △김지 원④ △노동원⑦
 △박인수⑦ △서관석⑦ △손재필⑦
 △송준성⑦ △양병환⑦ △이우진⑦
 △오국진⑦ △오창목⑦ △이공준⑦
 △이주국⑦ △임일규⑦
 ◆AMPP △김경관⑦ △김경만⑦
 △김선기⑦ △김창석⑦ △송남진⑦
 △신서훈⑦ △정성호⑦ △최이현⑦
 ◆AIC △권대영⑦ △김경환⑦
 △김영태⑦ △박재규⑦ △박태환⑦
 △이영호⑦ △이인기⑦ △이성환⑦
 △이정준⑦ △임윤모⑦ △정장현⑦
 △조성근⑦
 ◆AFB △강복순⑦ △김영아⑦
 △변지유⑦ △유광훈⑦ △이동락⑦
 △이상열⑦

분담금

◆태국비자 500\$
 ◆인도네시아비자 500\$

월 계 : 56,436,734원
 평균회비 : 44,100,000원
 총 계 : 592,938,924원
 +2,000\$

PDF & E-book Design HANWOORISJM